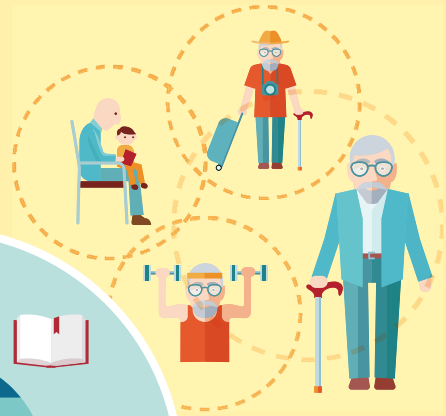


5가지 키워드로 본 5060 세대의 가족과 삶

• 원격부양 •



• 황혼육아 •



• 더블케어 •



• 동상이몽 •



• 부모은행 •



2018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 보고서

5가지 키워드로 본 5060 세대의 가족과 삶

심현정 · 정나라

Contents

요약	5
들어가며	10
I. 부모은행	12
1 30여년을 자식을 품고 사는 5060 캥거루 부모	12
2 성인자녀에게 나가는 고정지출, 월 73만원	16
3 부모은행의 애정담보대출	19
4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계획이지만 보답은 기대하지 않아	22
II. 원격부양	28
1 모시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28
2 시설간병이 대세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	31
III. 황혼육아	38
1 손주 돈 5060 절반은 황혼육아 중이거나 경험 있어	39
2 체력적 부담은 크지만 대가는 적어	40
3 황혼육아는 자녀사랑의 연장선	43
IV. 더블케어	47
1 더블 케어 비용, 소득의 20%에 달해	47
2 자칫하면 '트리플 케어'로 이어져	51
3 '케어 푸어(Care Poor)', 더블 케어의 잠재적 위험	53
V. 동상이몽	56
1 부양과 가사의 주체, 5060 여성	56
2 가족 부양에 대한 남녀의 시선차	59
3 애정의 크기는 달라도 결국엔 '당신' 밖에 없는 5060 부부	62
맺으며	64
참고 문헌	66

발행일 2018.5.8
발행처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타워 1, 13층
 (Tel. 02-3774-6979)
 홈페이지 : <http://retirement.miraeasset.com/>
발행인 김경록
저자 심현정 · 정나라
편집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제작 · 디자인 디자인비스
인쇄 현문자현

본 자료의 저작권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용·발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약 >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017년 12월 5060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가족 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해 분석했다. 그 결과 5060 세대의 가족 관계를 ‘부모은행’ ‘원격부양’, ‘황혼육아’, ‘더블케어’, ‘동상이몽’이라는 5가지 키워드로 압축했다. ‘부모은행’과 ‘원격부양’은 기존의 자녀 부양과 노부모 봉양이 확대,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다. ‘황혼육아’는 맞벌이가 필수인 사회에서 5060 조부모에게 새롭게 추가된 부양 과업이다. ‘더블케어’는 경제 저성장과 수명연장으로 인해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시 부양하는 5060 세대의 현실을 말한다. ‘동상이몽’은 가족 부양을 함께 감당할 부부 사이의 역할과 인식 차이로 인한 잠재적 갈등 요소다.



I. 부모은행

부모은행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5060 세대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결혼자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빗댄 말이다.

- 5060 10가구 중 7가구(73.3%)는 현재 성인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열에 아홉(87.5%)은 현재 성인자녀에게 생활비와 목돈을 지원한 적이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일체의 지원을 끊고 독립시키는 부모를 찾기 어려운 시대다.
- 5060 네 집 중 세 집(74.8%)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었거나 현재 지원하고 있다. 성인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생활비에는 용돈이나 보험료, 통신비 등이 포함된다. 성인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5060 가계는 매월 평균 73만 원을 주고 있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5060 가구 75.7%가 자녀에게 학자금을 비롯한 목돈을 지원했다. 평균 지원액은 5847만원이다. 이는 이들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3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미혼 성인자녀 다섯 중 세 명 이상(65.6%)이 부모에게 학자금 등의 목돈을 지원받았다. 금액은 평균 2,535만 원이다. 기혼 자녀

다섯 중 두 명(남 39.2%, 여 40.0%)은 결혼자금 등 목돈을 지원 받았다. 금액은 평균 6,372만 원이다.

- 5060 가구 중 42.9%는 앞으로도 성인자녀를 지원할 계획이다. 5060 가구가 자녀에게 앞으로 지원하려는 목돈은 1억 5162만 원, 생활비는 월 75만원이다. 이들은 기존에 5,800만 원의 목돈과 월 77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 5060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원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성인자녀를 지원해 준 5060 중 ‘자녀에게 준 경제적 도움을 나중에 보답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는 27.5%, ‘나는 자녀에게 나의 노후생활에 대한 지원이나 간병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는 20.4%에 그쳤다.

II. 원격부양

원격부양은 5060 세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방법이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거나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모셔 간병하는 현실을 표현한다.

- 5060가구 중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는 12.3%에 불과하다. 남편의 부모님을 모시는 비율이 8.3%, 아내의 부모님을 모시는 비율이 3.6%, 양가 모두 모시는 경우가 0.2%였다.
- 현재 본인의 부모를 모시지 않는 가구의 69.8%는 향후 노부모가 따로 지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 한다. ‘실버타운 및 요양시설’에 모시겠다(31.2%)는 의견이 가장 다수며, 근거리에서 살게 하겠다는 응답이 22.5%로 그 다음이었다.
- 5060 5가구 중 2가구 이상(44.6%)이 노부모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주고 있는 생활비는 월 평균 36만원이다.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가구가 27.0%, 비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드리는 가구는 28.4%다.

- 5060 가구 72.7%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6개월 이상 장기간 간병한 경험이 있다. 노부모 간병에 소요된 총 비용은 평균 2,035만원이다. 간병비를 형제자매가 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가계가 직접 부담한 비용은 평균 734만 원이다.
- 노부모를 간병할 때, 자녀들의 집에서 간병하는 ‘재택간병’이 23.5%,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간병하는 ‘시설간병’이 58.5%를 차지한다. 노부모 간병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설간병을 하는 경우 재택간병보다 간병 기간은 짧지만, 월평균 간병비용은 더 많이 든다.

III. 황혼육아

황혼육아는 노후를 바라보고 있는 5060 세대가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 손주가 있는 5060세대 절반(51.1%)이 황혼육아를 경험한 적이 있다. 과거에 손주를 양육해 주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경우가 24.0%, 현재 손주를 양육 중인 경우가 27.1%다.
- 황혼육아의 형태를 보면, 본인이나 손자녀가 서로의 집으로 오가는 ‘출퇴근 육아’가 대략 절반 정도다. 조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의 집에 방문해 손주를 돌보는 비율이 25.1%, 손주가 자신의 집으로 온다는 비율이 24.0%다. 자녀 부부 없이 손주만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답한 세대는 22.5%이며, 자녀 부부 및 손주와 함께 거주하며 손주를 돌보는 경우도 9.5%다.
- 5060 세대는 황혼육아의 가장 힘든 점이 체력적 한계(55.6%, 중복응답)라고 말한다. 시간 사용 제약(49.8%)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녀의 태도(21.5%)도 애로사항이다. 하지만 황혼육아는 힘겨움에 비해 보상이 적다. 양육수고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집은 34.9% 뿐이며, 평균 수령액은 69.6만원에 그쳤다.
- 5060 세대의 황혼육아는 자녀사랑의 연장선상에 있다. 자녀(부부)가 마음 놓

고 직장생활 또는 학업을 하게 도와주려고(48.0%) 황혼육아를 하게 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자녀가 아이를 전담해 양육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다(16.7%)는 이유였다.

IV. 더블케어

5060 세대는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간병을 하는 등 이중으로 부양의무를 지고 있다.

- 5060 세대 중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경우가 53.2%,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62.4%다. 아래로는 성인자녀를, 위로는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른바 ‘더블케어(Double Care)’에 놓인 가구는 34.5%로 세 집 중 한 집 꼴이다.
- 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더블 케어 가구는 성인자녀에게 월 78만원의 생활비를 주며, 노부모에게는 월 40만원을 준다. 양 쪽에 주는 생활비를 합하면 118만원이다. 이는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 579만원의 20.4%에 달하는 수준이다.
- 성인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노부모 간병이 더해지면, 간병비 지출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간병비 지출을 매월 지출로 환산해 살펴보면, 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노부모 간병비까지 지출할 경우 그 금액은 월 170만원에 이른다.
- 손주가 있는 더블 케어 가구 다섯 집 중 두 집(41.9%)은 더블 케어를 하는 와중에 추가로 손주도 돌봐주고 있는 ‘트리플 케어’ 가구다. 트리플 케어 가구가 손주를 돌봐준 기간은 평균 26.5개월이며, 이들 중 43.6%가 양육수고비를 받지 않는다.
- 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주는 더블 케어 가구의 22%는 ‘케어 푸어(Care Poor)’다. 이들은 성인자녀와 노부모 생활비로 가구 소득의 36.3%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케어 푸어 가구는 자신들이 무리하게 가족을 부양하는 것

같다고 여기며, 이들 5가구 중 3가구는 노후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V. 동상이몽

5060 남성과 여성은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이나 가족 부양에서 실제로 담당하는 역할, 서로에 대한 시선에 이르기까지 좁힐 수 없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 동상이몽은 그런 5060 남녀의 차이를 지칭한다.

- 5060 남과 여, 이들은 가족관계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의 차이부터 실제로 가족 내에서 담당하는 부양의 역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시선까지 분명한 간극이 드러난다.
- 5060 여성은 가족 내에서 노부모 부양이나 손주 양육과 같은 ‘돌봄노동’의 주체다. 노부모를 집에서 간병하는 경우 열에 일곱(69.3%)은 5060 여성이 주된 간병자가 된다. 손주를 돌볼 때도 85.1%는 여성이 황혼육아를 전담하거나 주로 담당한다.
- 5060세대 남녀는 가족 부양과 관련한 인식도 달랐다. 여성들은 그 간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자녀가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 대해 남성(46.4%)보다 더 큰 기대(57.0%)를 가지고 있다.
- 노부모 부양에 있어서 남성들이 여성들 보다 노부모 부양의 의지가 강하다. 남성의 75.7%는 여력이 된다면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으나, 이에 동의한 여성은 60.1%였다.
- 5060 남성은 배우자에게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지만, 여성은 자녀가 먼저다. 5060 남성은 가족 중 가장 애정을 느끼는 관계로 ‘배우자’(59%)를 뽑았지만, 여성은 ‘자녀’(54.4%)를 1순위로 꼽았다. 배우자라고 답한 여성은 29.9%다. 행복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다. 비록 애정과 행복에 대한 순위는 달랐지만 5060 남녀들은 향후 자신들의 노후를 함께 해 나갈 배우자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의지한다고 답했다.

들어가며

5060 세대의 인생은 우리 사회의 현대사와 닮아있다. 5060 세대가 젊은 나이에 사회에 진출해 삶의 현장에서 청춘을 꽃피우던 시기에 우리 사회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5060 세대가 사회 일선에서 퇴장을 준비하는 지금, 공교롭게 우리 사회도 고성장의 전성기를 마무리하고 저성장·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문제는 5060 세대가 살아갈 노후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라는 데 있다. 고령화로 인한 변화는 넓고도 깊다. 게다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그럴수록 노후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

독립해서 제 길을 가야 하는 자녀들이 부모 품에 오래 남아있다. 취업이 쉽지 않고, 결혼도 늦어지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부모 부양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일상적인 경제적 지원을 넘어 오랜 기간 노부모 간병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5060 세대는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가족 부양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가족 부양의 부담은 가족 내 경제적 지원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5060 세대의 가족을 향한 경제적 지원은 다층적 관계로 얽혀 있다. 아래로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위로는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있고, 심지어 자녀의 자녀까지 지원하기도 한다. 경제적 지원의 형태 역시 매월 경상지출이 있는가 하면, 비경상적인 목돈 지원도 있다. 자녀나 노부모 어느 한쪽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지원하는 ‘더블 케어’도 있다. 심지어 손자녀까지 돌봐주는 ‘트리플 케어’도 드물지 않다. 이같은 가족 내 경제적 지원은 5060 세대의 노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를 실시하여 5060 세대 가족 내 경제적 지원을 살피고 5060 세대가 안고 있는 가족 부양 부담을 조명했다.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살아 있으며, 슬하에 만 19세 이상 성인자녀를 둔 만 50~69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했다. 가족 부양 부담에는 재정적, 육체적 부담 뿐 아니라 정신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부양 행태를 살펴봄과 동시에 부양 중 느끼는 감정과 애로사항, 행동 이면의 동기와 부양 의식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나아가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5060 세대가 가족을 부양하며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담긴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이를 통해 5060 세대의 가족 부양 부담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본 보고서는 5060 세대의 가족 부양 현실을 ‘부모은행’, ‘원격부양’, ‘황혼육아’, ‘더블케어’, ‘동상이몽’ 5가지 키워드로 집약했다. ‘부모은행’은 자녀부양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된 현실을 표현한다. ‘원격부양’은 5060 세대가 현실에 맞춰 변형한 노부모 부양 형태다. ‘황혼육아’는 맞벌이가 필수인 사회에서 5060 조부모에게 새롭게 추가된 새로운 부양 과업을 말한다. ‘더블케어’는 5060 세대가 경제 저성장과 수명연장으로 인해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무거운 현실을 그려낸다. 마지막으로 ‘동상이몽’은 가족 부양을 함께 감당하는 부부 사이의 부양에서의 역할과 인식차이로 인한 잠재적 갈등 요소다.

본 보고서는 5060 세대의 가족부양 실태 뿐 아니라 이들이 부양을 하며 겪는 어려움, 가족 내 부양책임자로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 부양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이유 등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과 동기까지 함께 살피고 있다. 나아가 가족 부양이 5060 세대 삶에 부담 요소가 되어 노후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닐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본 보고서를 통해 5060 세대가 가족 부양과 자신들의 노후 사이에 있는 갈등을 인식하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율해 갈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2018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 〉

● 조사 내용

- 성인자녀 경제적 지원 실태 및 인식
- 노부모 부양(주거 관련, 경제적 지원, 간병 경험) 실태 및 인식
- 손주 양육 실태 및 인식
- 가족 관계 및 가족 부양에 관한 인식

● 조사 개요

	설문조사	일대일 대면조사(In-Depth Interview)
조사 대상	국내 거주 만 50~69세 남녀 2001명 (조사일 현재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중 한 명 이상이 살아 있고, 만 19세 이상 성인자녀가 있는 자)	만 50~69세 남녀 10명 (설문조사 응답자 중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모님 간병, 손주 양육 중 2가지 이상 부양 경험이 있는 자)
조사 기간	2017년 12월 4~22일	2017년 12월 7~18일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 및 전화 조사	전문 인터뷰어와 약90분간 1:1 인터뷰

KEY WORD

1

부모은행



‘돈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었다.’

부모의 사업이 망한 뒤 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학업도, 취업도 힘들었다. 낙하산 친구에게 정규직 자리도 빼앗겼다. 그런 딸을 위한 부모의 선택은 딸의 출생을 속여서라도 부잣집에 들어가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게 해주는 것이었다. 2018년 3월 종영한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의 한 장면이다. 딸을 바꿔치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다루었음에도 이 드라마가 큰 호응을 받았던 것은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주고 싶어 갖은 희생을 감수하는 우리네 부모의 마음을 그만큼 잘 그려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들의 취업과 자립이 어려운 시대, 5060 부모들은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보며 두 손 놓고 앉아있을 수가 없다. 성인이 된지 한참인 자녀이지만 같이 살며 뒷바라지를 하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흔하다.

1 30여년을 자식을 품고 사는 5060 캥거루 부모

5060 가구 열에 일곱은 성인자녀와 함께 살며, 그중 절반에게 경제적 지원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성인자녀가 있는 만 50~69세 남녀 2001명을 조사한 결과, 5060 가구 열에 일곱(73.3%)은 현재 성인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답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독립하지 않고 있는 ‘캥거루족’ 자녀는 부모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성인 자녀의 53%는 현재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함께 받고 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성인자녀의

16.6%만이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의 수치다. 성인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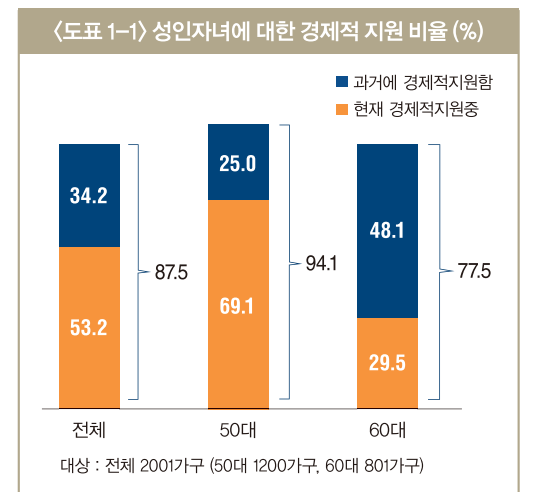
5060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자녀의 절반 이상(53.3%)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주거비 또한 만만치 않아 2030 젊은 세대가 선불리 독립을 외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녀들을 고생길로 밀어 넣을 수는 없는 노릇. 할 수만 있다면 데리고 살면서 자녀들이 자산을 모아 독립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서구 사회에서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자녀가 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성인이 되면 독립한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이었지만,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임금성장을 둔화로 인한 일련의 가계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의 거주형태를 바꾸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미국 18~34세 성인의 32.1%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EU 회원국 28개국 18~34세의 절반(48.1%) 가량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이 결과는 성인자녀의 독립이 늦어지고 부모에게 의존해 지내는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말해준다.

5060 10가구 중 9가구는 성인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

5060 가구 열에 아홉(87.5%)은 성인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지금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지만 과거에 했던 경우가 34.2%이며 현재 성인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53.2%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라 함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매월 생활비나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거나 필요한 목돈(학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일체의 지원을 끊고 독립시키는 부모를 찾기 힘든 요즘이다.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아무래도 60대에 비해 50대가 현재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50대의 자녀 평균연령이 더 낮고(50대 가구 자녀 평균연령 24.8세, 60대 가구 자녀 평균연령 33.4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가 많기 때문이다. 50대의 69.1%가 현재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



고 있다. 상대적으로 60대가 현재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비율(29.5%)은 낮다. 50대의 경우 자녀가 20대 초·중반으로 대학 학업 중이거나 취업하기 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자녀들이 차차 경제적 독립을 하게 되므로 60대 부모는 50대보다는 성인자녀 부양 부담이 조금은 덜하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원 항목별로 나눠 살펴봤다. 5060 가구의 74.8%가 성인 자녀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이때 지원한 생활비는 월평균 73만원이다. 5060 가구 중 목돈을 지원한 가구 비율은 75.7%이며, 이들 가구들은 평균 5847만원을 썼다. 목돈 중에는 학자금을 지원해 준 비율이 가장 높아 10가구 중 7가구(67.1%)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었고, 지원한 학자금의 평균 금액은 3485만원이다. 목돈 항목 중 평균 지원액이 가장 큰 항목은 주택자금으로, 평균 7379만원이었다.

〈도표 1-2〉 가구별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 , 만원)

	가구 기준		
	지원한 비율(%)	평균지원액(만원)	
월 생활비 지원	74.8	73	
목돈 지원	학자금	67.1	3,485
	결혼자금	17.8	3,529
	주택자금	17.6	7,379
	기타 목돈	12.0	2,060

대상 : 전체 2001 가구 ※ 평균지원액은 지원한 가구만의 평균임

성인자녀 한 명당 월 생활비 45만원, 목돈 3833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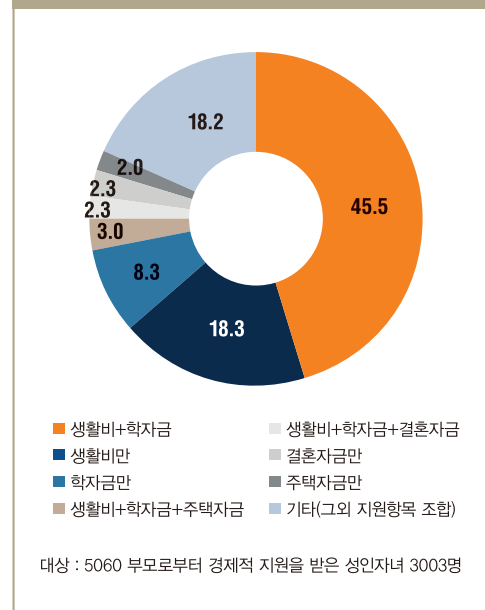
5060 가구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자녀 개별로 나눠서 살펴봤다. 5060세대 2001 가구에 속한 성인자녀 3663명 중 3003명(82%)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성인자녀들로 한정해 보니, 1인 당 평균 1.6 가지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2가지 지원을 받은 경우가 42.4%로 가장 많았다. 생활비+학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가 45.5%로 절반에 가깝다.

성인자녀 세 명 중 두 명(65.8%)은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부모에게 받은 생활비는 월 평균 45만원이다. 또한 성인자녀의 65.4%가 부모에게 목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1인 당 지원 받은 금액은 평균 3833만원 가량이었다.

앞선 결과를 토대로 보면 5060 부모의 절반 가량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학업을 마칠 수 있게 생활비와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 생활비는 월 45만원, 학자금은 총 2287만원이 들어간다.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기간을 4년으로 어렵더라도 자녀 한 명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생활비와 학자금만으로 4447만원을 지원해주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도표 1-3〉 성인자녀가 5060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 유형 (%)



수명이 12~18년인 캥거루는 6~12개월 동안 새끼를 육아낭에 넣고 키운다고 한다. 캥거루는 길게 잡아야 수명의 1/10에 해당하는 기간을 새끼를 위해 희생한다. 오늘날의 5060 캥거루 부모는 어떨까? 2017년 남자의 초혼연령은 32.9세, 여자는 30.2세다.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는 성인 자녀를 30여년 가량 품고 지낸다면 인생의 1/3을 자녀에게 할애하는 것이다. 어미 캥거루가 새끼에게 육아낭 속의 젖을 먹이듯 생활비와 독립자금을 대주는 채로 말이다.

〈도표 1-4〉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 (% , 만원)

	성인자녀 1인기준		
	지원받은 비율(%)	평균지원액(만원)	
월 생활비 지원	65.8	45	
목돈 지원	학자금	65.4	3,833
	결혼자금	12.4	2,926
	주택자금	12.6	6,010
	기타 목돈	8.9	1,586

대상 : 5060 가구에 속한 성인자녀 3663명 ※ 평균지원액은 지원을 받은 성인자녀만의 평균임

●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중인 5060 가구의 삶**



본 조사 결과, 현재 성인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5060 가구의 78%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2세대 가구다. 노부모, 부부, 자녀가 함께 지내는 3세대 가구는 8.8%이며, 부부만 사는 경우는 8.1%로 세 번째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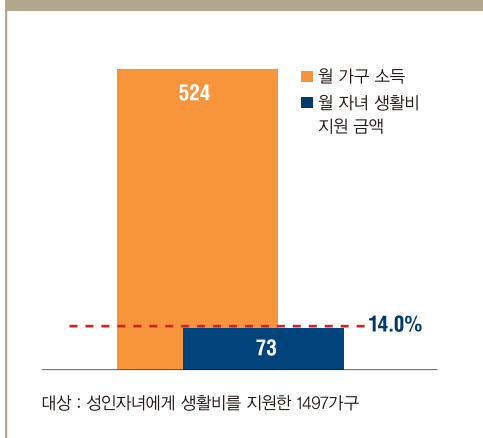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가구의 남성 평균 연령은 56세, 여성은 55세다. 2/3는 현재 경제활동 중이며,

1/3(33.5%)은 은퇴하였거나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가구 당 성인자녀는 1.8명인데, 이 중 1.5명(83.3%)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4.9세다. 20대 초반인 자녀들이 많지만, 30세 이상인 자녀도 17.2%나 된다. 이 가구에 속한 성인자녀 대부분이 미혼(97.4%)이며, 열에 여섯(57.8%)은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2 성인자녀에게 나가는 고정지출, 월 73만원

5060 4가구 중 3가구(74.8%)는 성인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었거나 현재 지원하고 있다. 성인자녀에게 지원하는 생활비에는 용돈이나 보험료, 통신비 등이 포함된다. 성인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가구가 자녀에게 생활비로 준 금액은 월 73만원 정도다. 이는 가계 월소득(524만원)의 14%에 해당한다.

〈도표 1-5〉 성인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 (만원)



성인자녀 생활비 지원은 고정지출 성격

성인자녀에 주는 생활비가 5060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어떠한 지출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지출액의 절대적인 규모가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여건에 따라 지출 수준을 조절하지 못하고 고정적으로 계속 지출해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자녀에게 나가는 생활비가 어떤 지출 성격을 띠는 지 확인해 봤다.

가계의 지출 상황을 점검할 때,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구분한다. 고정지출은 공과금이나 집세와 같이 정기적으로 반드시 지출이 필요하며 매달 금액 변화가 적다. 가계에 따라 최소한의 식비, 용돈, 현금이나 기부금 등도 고정지출로 잡는다. 반면, 변동지출은 지출 여부나 규모를 가계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지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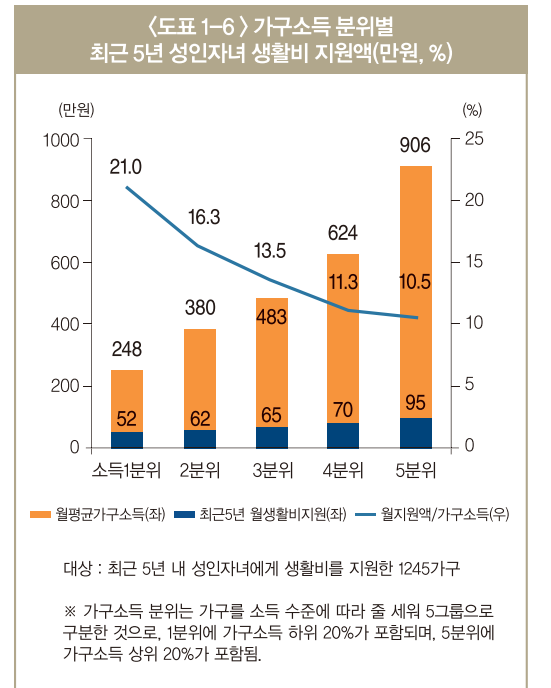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이 지출된다는 면에서 성인자녀 생활비는 고정지출의 특성을 갖는다. 5060 부모들이 성인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를 살펴보니 가계의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정도가 약했

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48만원인데, 이들은 매월 52만원을 성인자녀에게 지원해 소득의 21%를 할애한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계는 월 906만원을 벌며 10.5%인 95만원 가량을 성인자녀에게 생활비로 준다. 소득 5분위 가계의 월 소득은 1분위 가계의 4배 수준이지만, 성인자녀에 지원한 생활비는 2배가 채 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소득이 적은 집이라고 해서 성인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도 소득 수준에 맞춰 적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인자녀가 생활하는데 고정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가계라도 무리가 될지언정 일정 규모의 생활비를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5060 가계가 성인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이는 가계가 상황에 따라 쉽게 조절하기 어려운 고정지출로 자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대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 비율 높아

5060세대의 성인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자녀 개별 특성으로 돌보기를 옮겨봤다. 성인자녀의 특성별로 최근 5년 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비율과 금액을 비교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0~40대에 비해 생활비를 지원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미혼이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자녀 세 명 중 두 명(각각 61.3%, 63.7%) 가가



이가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75.4%가 생활비를 지원받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수입이 있거나 결혼한 자녀처럼 부모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만한 성인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경우가 눈에 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자녀 셋 중 하나(32.3%)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았으며, 결혼을 하고도 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도 11.9%다. 자녀들이 독립할 조건이 되더라도 부모가 무조건 생활비 지원을 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유경 외(2015)를 보더라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40대 이상 부모가 부양하는 성인자녀(만25세 이상) 중 취업자 비율은 58.9%로 비취업자(28%) 및 학생(13.1%)보다 많았다. 성인 자녀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한 뒤에도 생활비를 주는 데는 자녀가 보다 여유있는 삶을 살고, 부모의 지원을 디딤돌 삼아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하고 싶은 부모의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

최근 5년 내 성인자녀 한 명이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생활비는 평균 월 47만원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생활비를 받은 비율은 떨어지지만, 지원받은 금액은 증가했다. 40대인 자녀 중 9%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는데 그 평균금액이 82만원이다. 기혼 자녀 역시 미혼 자녀들보다 생활비를 지원받은 비율은 낮지만 미혼 자녀에 비해 10% 더 많은 생활비를 받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함께 사는 경우보다 11만원 가량 생활비를 더 받았다.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하고도, 따로 거주하면서도 부모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지 않은 성인자녀들이 부모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통상 시간이 흐르면서 5060 가계가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이 낮아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자녀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독립 의지가 약해 부모들이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면, 부모세대가 꿈꾸던 평안한 노후가 어그러지는 것은 시간문제일지 모른다.

3 부모은행의 애정담보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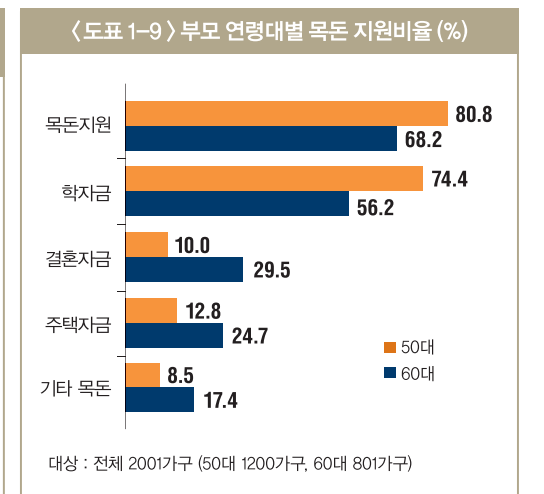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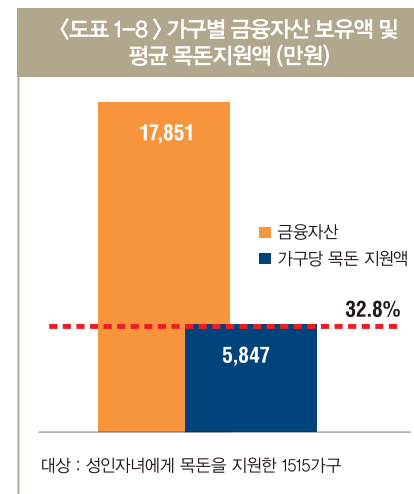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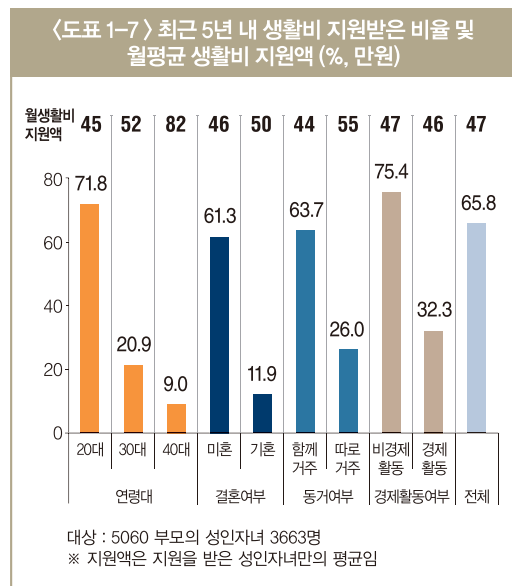
5060 4가구 중 3가구는 자녀에게 5847만원의 목돈 지원

80년대에 자식 키우는 부모의 가장 큰 부담은 대학 등록금이었다. 농촌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고 소를 팔아 등록금을 낸다고 하여 대학을 우골탑이라 부르기도 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5060 세대가 지고 있는 성인자녀에 대한 부담은 과거 그들의 부모님 세대의 부담을 훌쩍 넘어섰다. 5060세대는 학자금을 기본이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집을 사는 데 필요한 목돈까지 대주고 있는 실정이다.

5060 가구 중 75.7%가 자녀에게 학자금을 비롯한 목돈을 지원했고, 평균 지원액은 5847만원이다. 이는 이들 가계 금융자산의 32.8%에 해당한다. 50대의 경우 네 가구 중 세 가구(74.4%)가 학자금을 지원했지만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지원한 경우는 적었다. 50대 가구의 자녀 평균연령이 25세로 아직 결혼을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60대 가구가 결혼자금, 주택자금, 기타 목돈을 지원한 비율은 50대의 2~3배 수준이다. 대개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이 학자금에 비해 지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60대의 목돈 지원 규모가 50대에 비해 월등히 크다. 60대 가구의 평균 목돈 지원액은 9058만원이며, 50대는 3868만원이다.

미혼 자녀에게는 학자금, 기혼 자녀에게는 결혼자금과 주택자금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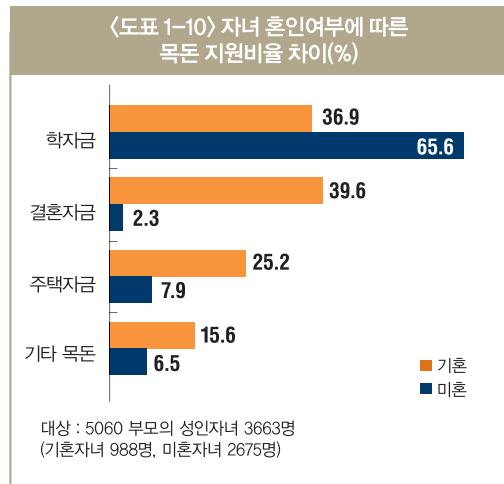
결혼 하지 않은 자녀에 대한 목돈 지원은 학자금이 대부분이다. 이후 자녀의 결혼을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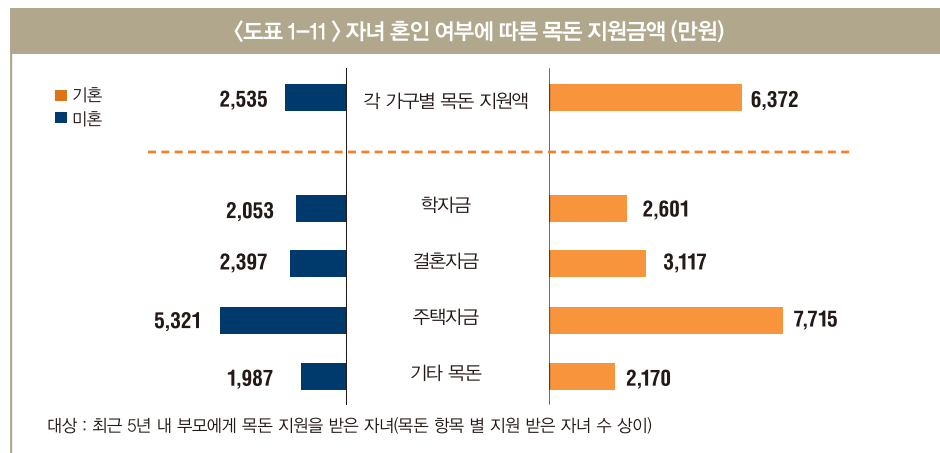
로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결혼한 자녀 다섯 명 중 두 명(남 39.2%, 여 40%)은 결혼할 때 부모에게 목돈을 지원받았다. 결혼한 자녀들은 미혼 자녀에 비해 주택자금이나 기타 자금(사업관련 자금, 출산관련 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도 많다.

“학비하고 용돈하고 주다가, 졸업과 동시에 끊었었죠. 애가 결혼할 때 보니까 돈을 모아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혼수하고 집을 할 때 조금 보태줬죠”(김OO, 59세 여)

“부모들 입장에서는 결혼함과 동시에 바이바이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하고도 얘기해보면 영원한 레이스다. 결혼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백OO, 62세 여)



성인자녀에 대한 목돈 지원은 생활비 지원과 달리 정기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부모들은 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늘 준비하고 있다. 5060 부모은행의 애정담보대출은 항상 대기 중이다. 자녀가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까지 묵묵히 바라보며 자녀들이 가장 먼저 찾는 문턱 없는 은행을 자처하고 있다.



최근 5년 내에 기혼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목돈은 평균 6372만원이며, 이는 미혼 자녀들이 받은 지원액(2535만원)의 2.5배 수준이다. 자녀의 결혼이 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아들 결혼 시킬 때 주택자금 해주는 비율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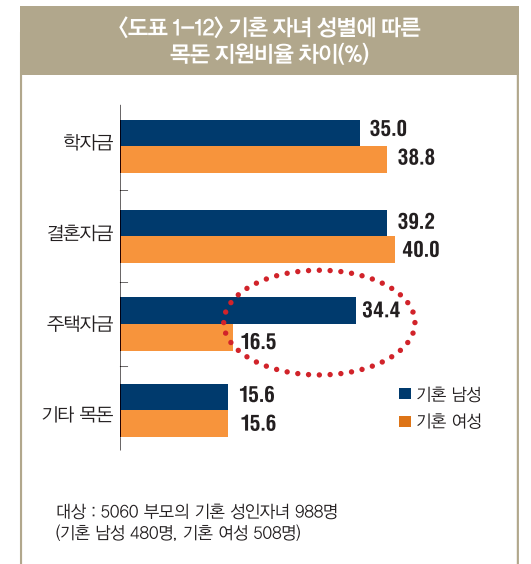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5060 부모의 아들, 딸에 대한 목돈 지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혼 자녀들이 결혼자금을 지원받은 비율에 남녀 차이가 없지만, 주택자금의 경우 차이가 눈에 띄었다. 기혼 남성의 34.4%가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절반(16.5%)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자는 집값을 도와주는 차원이지만, 남자는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중략- 제가 지금까지 저축해 놓은 것도 거의 아들 집 살 때 반 이상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김OO, 57세 여)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직은 여자가 많이 보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집을 할 때 문에 더 많이 들거 같아요. 1억5천, 2억 정도는 생각해야 할 거 같아요”(김OO, 59세 여)

불안한 고용환경과 집값 상승의 현실 속에 남녀가 결혼 비용이나 주택 마련 자금을 적절히 부담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5060 부모의 다수가 여전히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의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5060 부모은행은 자녀의 학자금에서 결혼과 주택마련에까지 광범위하게 애정담보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애정담보대출이라 칭한 것은 이 대출이 별다른 담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다. 조사에서도 자녀



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이들 중 자녀에게 준 도움을 나중에 보답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는 27.5%에 불과했다. 부모 자식간 사랑만이 대출의 유일한 담보물이자 상환항목이다.

부모은행의 대출은 비단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니다. 주택가격이 높고 빠르게 상승하기로 유명한 홍콩에서도 젊은 주택구매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 대출기관이 ‘엄마·아빠 은행’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처음 내집 마련에 나선 젊은이들이 주택관련 대출 납입금을 갚기 위해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메릴린치의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미국인 중 성인자녀(만 21세 이상)에게 지난 5년 이내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경우가 68%에 달하며, 이들 중 20%는 주택관련 자금을 지원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4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계획이지만 보답은 기대하지 않아

5060 5가구 중 2가구, 향후 자녀지원 계획 있어

5060세대에게 향후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의사를 물었다. 앞으로 더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인 부담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60대(36%)보다는 50대(47.6%)가 향후 성인 자녀를 도와주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원 계획이 없는 이들과 비교해 살펴 볼 때, 지원 계획이 있는 그룹은 자녀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편이고, 미혼 자녀가 많으며, 경제활동 중인 자녀가 적었다. 아직 부모들이 부양책임이 남았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다.

5060 세대는 향후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이어나가려는 생각일까? 경제적 지원 항목별로 나눠 살펴봤다. 생활비와 학자금의 경우 과거 지원한 비율에 비해 향후에 지원 하겠다는 비율이 낮다. 이미 어느 정도 지원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자금과 주택 자금의 경우 과거 지원한 비율보다 향후에 지원하려는 비율이 높다. 50대와 60대를 나누어 보더라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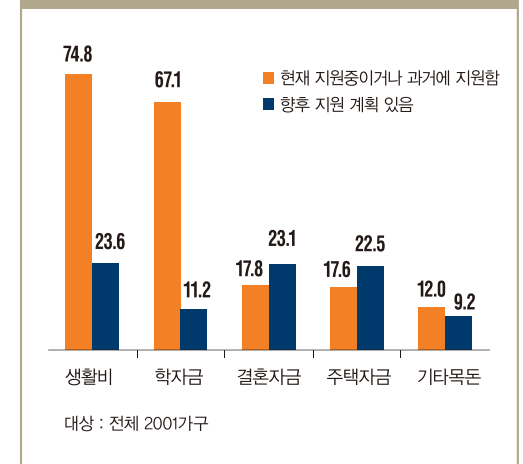
향후 자녀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 가구는 평균적으로 약 1억 5162만원의 목돈을 더 지원할 것이라 답했다. 생활비는 기존에 77만원을 지원한 데 비해 향후에 75만원을 지원하겠다 하여 큰 차이는 없지만 목돈의 경우 기존에 지원한 금액(5800만원)의 3배 가까운 금액을 더 지원하겠다고 했다. 향후 목돈 지원 예상액이 과거 지원한 금액에 비해 큰 것은 비교적 큰 돈이 들어가는 결혼자금, 주택자금에 대한 지원이 남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매월 주는 생활비와 같이 자녀들의 생활에 대한 일상적인 보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결혼이나 주택마련과 같이 큰 돈이 드는 이벤트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표 1-13〉 향후 성인자녀 지원 계획여부에 따른 집단 특성 차이

	N	향후 자녀지원 계획 없는 집단		향후 자녀지원 계획 있는 집단		
		(명)	(%)	(명)	(%)	
전체	2,001	1,142	57.1	859	42.9	
연령대	50대	1,200	629	52.4	571	47.6
	60대	801	513	64.0	288	36.0
자녀 평균 연령 (세)	28.3	29.2		27.0		
미혼자녀 수 (명)	1.4	1.4		1.5		
경제활동 자녀 수 (명)	1.2	1.3		1.0		
월 가구소득 (만원)	495	464		536		
금융자산 (만원)	16,984	15,296		19,218		
총자산 (만원)	57,647	51,545		66,001		
과거 성인자녀 경제적 지원 경험률 (%)		80.7		96.4		
과거 성인자녀 생활비 지원액 (만원)		5890		5800		
과거 성인자녀 목돈 지원액 (만원)		70		77		

향후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859가구 중 37.7%는 향후 현재 보유 금융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했다. 이들 가계는 자녀 지원에 대한 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계획대로 자녀에게 지원한다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자산을 털어서 자녀에게 지원할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자산을 처분해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도표 1-14〉 경제적 지원 항목 별 지원 경험 및 향후 계획 (%)



〈도표 1-15〉 과거 및 향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액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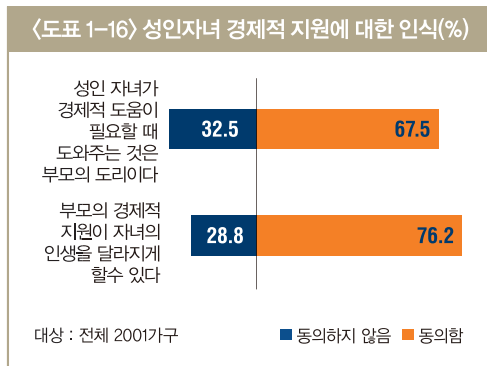
지원항목	가구당 과거 지원액	가구당 향후 지원 예상액
월 생활비 지원	77	75
목돈 지원	5,800	15,162
- 학자금	3,510	2,770
- 결혼자금	3,169	6,230
- 주택자금	7,460	15,721
- 기타 목돈	1,256	3,363

대상 : 향후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859가구(목돈 항목별 지원 의사를 밝힌 가구 수 상이)
 ※ 과거 지원액 및 향후 지원 예상액은 실제 지원했거나 지원의사를 밝힌 가구만의 평균임.

부모의 도리로 지원하지만, 보답은 기대하지 않아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계속되는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유별난 열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고생길을 걸어가게 될 자녀들을 걱정하는 부모의 인지상정 때문이다. 실제로 5060 10명 중 7명(67.5%)은 성인자녀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을 부모의 도리로 여기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이들도 76.2%나 됐다. 부모가 도와주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지금도 5060세대가 성인자녀를 계속 지원하는 이유이자 동력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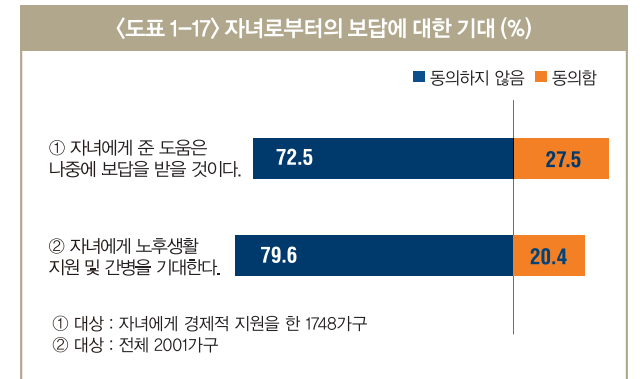
자녀들을 생각하는 5060 부모의 속내를 들여보았다.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 역시 쉽지 않았지만 그 때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헤쳐가며 살아야 하는 자녀세대에 대해 느끼는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도와주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주변을 봐도 그렇고요”(홍OO, 62세 여)

“이 아이들이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청약 같은 것도 넣어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하느거죠.”(강OO, 61세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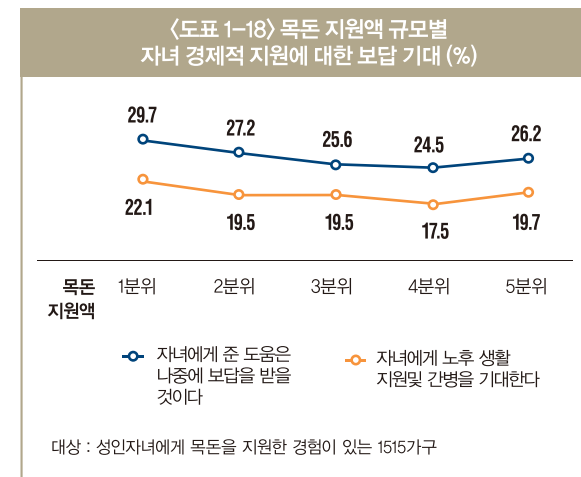
5060세대는 헌신적으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지만 자녀에게서 보답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성인자녀를 지원해 준 5060 세대 중 ‘자녀에게 준 경제적 도움을 나중에 보답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는 27.5%에 불과했다.



나머지 72.5%는 보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향후에 부양을 받으려는 경향도 낮았다. ‘나는 자녀에게 나의 노후생활에 대한 지원이나 간병받을 것을 기대한다’에 5060 다섯 명 중 한 명(20.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성인자녀에게 지원한 것에 대해 나중에 보답을 받으려는 기대의 정도는 그 동안 자녀를 지원해 온 규모와 별 관계가 없다. 성인자녀에게 많은 돈을 지원했을수록 본전을 찾고 싶은 기대 심리가 있을 법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달랐다. 오히려 목돈 지원 금액이 적은 경우(목돈 지원액 1분위) 자녀에게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큰 편이고 지원액이 많다고 해서 보답을 기대하는 정도가 커지는 것은 아니었다. 5060 부모들이 성인자녀를 도와 줄 때, 준 만큼 돌려받는 ‘give and take’를 기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녀나 가족에게 노후 경제적 지원이나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5060 세대로 하여금 자녀에게 보답을 기대하지 않도록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 있다는 의견이 감소해 1998년 89.9% 였던 것이 2014년에는 31.7%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대신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8.1%에서 16.6%로 증가했다.

불평등한 부모-자녀 지원 관계, 재고할 필요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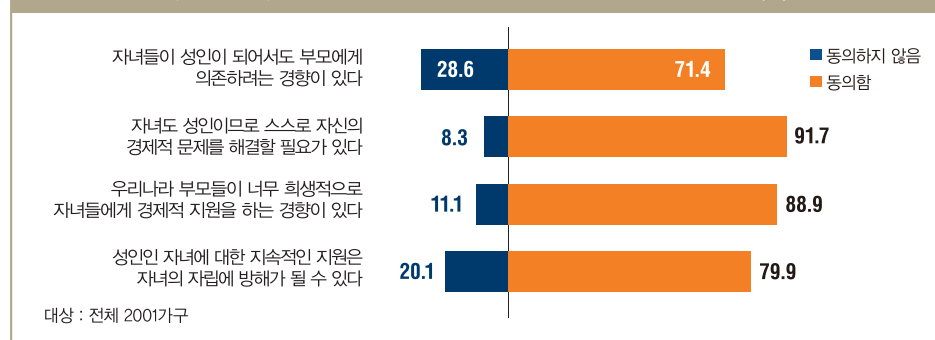
받으려는 마음 없이 주고만 있는 5060 부모, 과연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5060 부모들은 자녀들의 지나친 부모 의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71.4%). 5060 부모 대부분은 자녀들이 성인이므로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91.7%)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자녀들의 의존성 문제만은 아니다. 5060 열에 아홉(88.9%)은 부모들이 너무 희생적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자녀가 자립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될까 염려하는 이들도 상당수(79.9%)다.

가족학자 이재림(2017)은 우리나라의 부모-성인자녀 관계에서 장기적 호혜성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 관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당연히 여겨지는 반면 성인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데 대한 기대가 쇠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립하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 지금의 2030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평하지 않게 유지되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부모는 성인자녀에 대한 실망감, 불만 등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성인자녀는 죄책감을 느낄 여지가 있다. 오늘날 5060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녀들의 지나친 의존성을 걱정하기도 한다. 서로에 대한 기대와 감정의 차이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5060부모의 이타적인 성인자녀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은퇴를 앞둔 5060의 노후 준비보다 우선시 되곤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성인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5060 세대 5가구 중 3가구(61.5%)는 노후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8.4%는 ‘현재 노후 대비가 불충분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노

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자녀에게 지원을 계속할 경우 노후 삶의 질이 저하될 위험성이 높다.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서 성인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토록 잘 살기를 바랐던 자녀에게 도리어 짐이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노후 형편이 어려워져서 자녀에게 부양의 부담감을 안겨주거나 이와 관련해 자녀와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5060 부모 스스로 자신들의 앞길을 먼저 점검하고 챙겨봐야 한다.

〈도표 1-19〉 성인자녀 지원에 있어 자녀 및 부모의 태도에 대한 견해 (%)



KEY WORD

2

원격부양



성인이 다 된 자녀들을 지원하느라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홀했던 오늘날의 5060 세대. 본격적인 노후 생활을 앞두고 느끼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불안이 결코 낮설지 않다. 5~60년을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그들의 노부모가 그러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들의 부모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헌신적인 인생을 살아왔다. 먹고 사는 것 만으로도 빠듯해 노후를 위한 저축은 따로 생각하기 어려웠고, 자식농사를 잘 지으면 노후가 편안하리라 내심 기대한 세대다. 이를 알면서도 노부모의 노후를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자식이 몇이나 될까? 한편으로는 사랑과 공경의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노부모에 대한 연민과 책임감으로, 5060세대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그들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1 모시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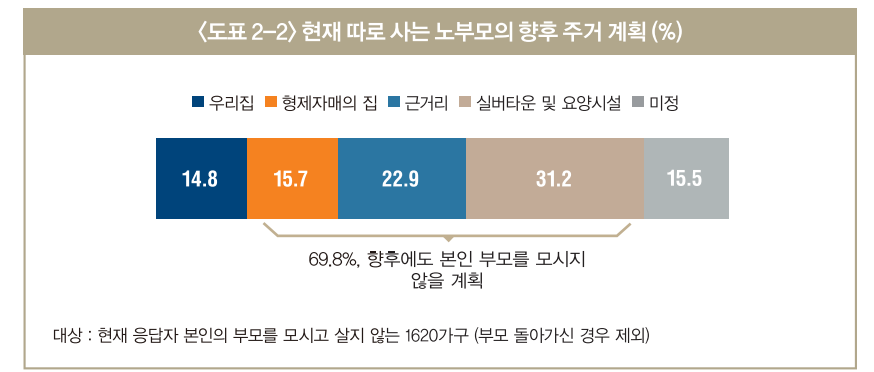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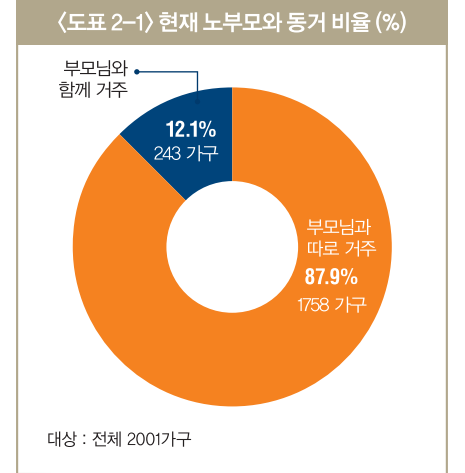
노부모 동거가구는 열 집중 한 집 뿐

조사 대상 5060 가구 중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는 12.1%에 불과하다. 남편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8.3%, 아내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3.6%, 양가부모 모두 모시고 사는 경우가 0.2%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가족이 사라지고 세대별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자리잡은 결과다. 5060 세대의 부모라면 이미 70대 이상일 테지만 아직까지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해서 자녀와 함께 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여지도 있다.

현재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살아계시지만 집에 모시고 살지 않는 5060 가

구(1620가구)에게 향후 부모님이 사별하거나 건강 악화로 간병이 필요해 따로 떨어져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거주문제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물었다. 현재 노부모를 모시지 않지만 그러한 상황이 되면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는 응답이 14.8%였다. 그러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실버타운 및 요양시설’에 모시겠다(31.2%)는 의견이다. 자신의 집에 모시지는 않고 근거리에 살게 하겠다는 응답이 22.9%로 그 다음이었다.

종합해보면, 현재 5060 가구 열에 아홉(87.9%)은 현재 노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으며, 이들은 노부모가 혼자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노부모님들이 따로 살고 싶어 한다’(26%)거나 ‘살던 지역을 떠나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18.2%)이라 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을 모실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9.5%에 이르며,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기 때문’도 16%를 차지했다. 노부모들이 자녀인 5060 세대와 함께 살기를 불편해 하고 5060 입장에서도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거나 생활에서 불편을 느껴 노부모 모시기를 꺼리는 모양새다.



“친정어머니는 혼자 계세요. 아들내외 옆에 있고 딸들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혼자 계시니까 더 편하시대요. 머느리하고 같이 안 사시려고 하더라고요.” (김OO, 59세 여)

노부모를 모시지는 않아도 아예 돌보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절충안을 생각하고 있다. 심층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노부모의 근거리에 살거나 형제 자매의 집에 모셔서 자주 오고 가며 필요한 경우에 부양을 하려는 모습이다.

5060세대 44.6%는 노부모에게 매월 36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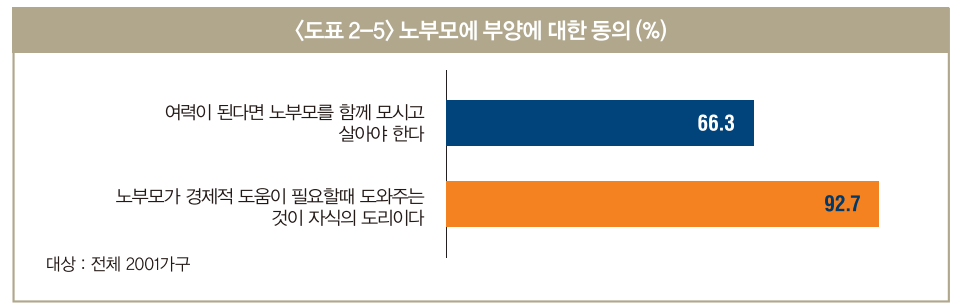
5060 세대는 노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래도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감당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두 집 중 한 집(44.6%)은 노부모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드리는 경우도 28.4%로 적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도 50대와 60대 다섯 명 중 세 명 꼴(50대 61.9%, 60대 56.7%)로 부모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5060 세대가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노부모의 생활을 지원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5060 가구가 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평균 월 36만원이다. 생활비를 드린다고 한 경우(월 44만원)가 용돈(월 30만원)을 드린다고 한 경우보다 지원 금액이 크다. 36만원은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892가구의 평균 가구소득 537만원의 6.8%에 해당한다. 5060 가구 중 성인자녀에게 지원을 하는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원액인 73만원의 절반 정도다.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은 한 가구가 전적으로 부담하지만, 노부모 지원은 대개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십시일반으로 생활비를 드려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가구 당 지원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표 2-4〉 연령대별 부모 부양방식 (%)

구분	동거+경제적 자립	동거+경제적 의존	별거+경제적 자립	별거+경제적 의존	기타	
전체	20.7	24.8	27.9	23.5	3.1	
연령	20~29세	75.0	7.5	17.5	-	-
	30~39세	34.7	20.2	29.5	15.6	-
	40~49세	13.4	25.4	34.4	23.3	3.5
	50~59세	7.0	31.7	22.5	33.7	4.8
	60~64세	10.3	26.2	20.8	34.5	8.2

자료 : 김유경 외(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시간 부양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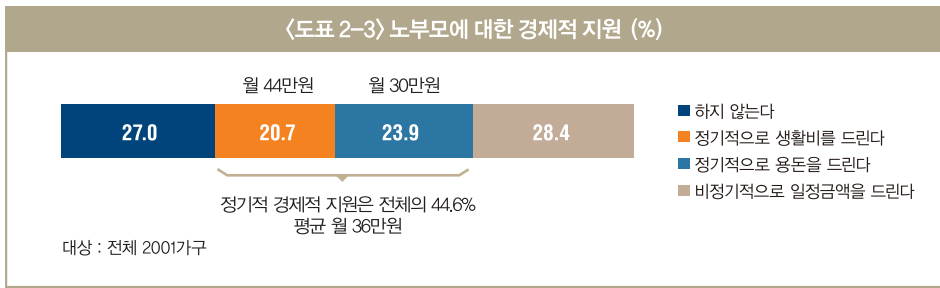
노부모와 따로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부모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양 방식은 40대 이하에서는 그 비율이 높지 않은데 5060 세대에서는 가장 비율이 높다. 5060 세대의 노부모 부양 트렌드는 원격, 경제적 지원이라 볼 수 있다.

향후에도 5060 세대의 노부모 부양은 원격, 경제적 부양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5060 세대는 모시고 사는 것과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 둘 다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기는 하지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데 대한 동의율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2 시설간병이 대세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

5060 가구의 72.7%, 노부모 간병 경험 있어

본 조사의 대상이 된 5060 세대 중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6개월이



김유경 외(2015)는 부모 부양의 방식을 동거+경제적 자립, 동거+경제적 의존, 별거+경제적 자립, 별거+경제적 의존으로 구분하고, 현재 부모를 부양하는 이들의 연령대별 부양 방식을 살펴본 바 있다. 전체적으로 부모와 따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자립된 방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5060 세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양상이 다소 달랐다. 대체로 5060 세대의 노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50대의 33.7%, 60대의 34.5%는

상 장기간 간병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72.7%에 달한다. 5060 세대에게 노부모 간병은 누구나 한 번 이상 겪을 법하며, 예고 없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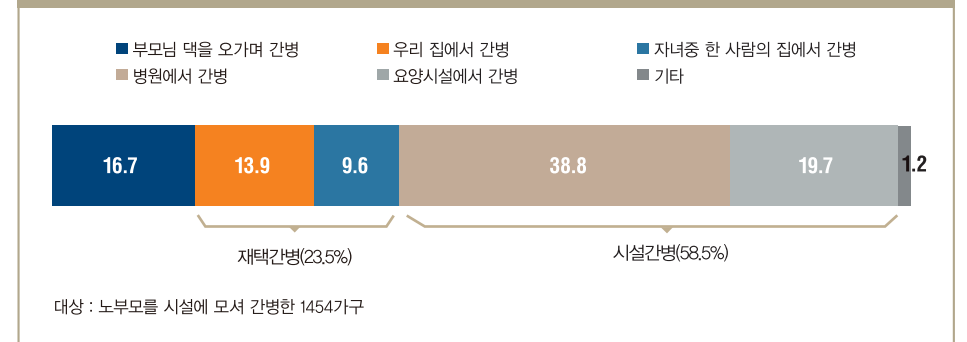
가장 최근에 노부모를 간병한 경험에 대해 물었다. 노부모를 간병한 평균 기간은 약 22개월이며, 가장 길게는 최대 15년(180개월)을 간병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2년에 가까운 간병기간은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다. 간병에 소요된 총 비용은 2035만원이며, 평균적으로 각 가계가 부담한 비용은 734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36.1% 수준이다. 노부모 간병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분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용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총 간병비용과 본인 가계가 부담한 간병비용의 중간값이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 별 간병비용의 편차가 크며 응답자 중 소수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간병비용을 지출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응답 중에 총 간병비로 1억 8천만원이 들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5060 세대가 경험해왔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노부모 간병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노부모 병환의 종류나 상태의 경중에 따라 간병기간과 의료비용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만약 한 가구에서 양가(兩家)의 노부모 여러 명을 차례로 또는 동시에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도표 2-6〉 노부모 간병 기간 및 간병 비용 (% , 명)

	평균	최대값	중간값
노부모 간병 기간 (개월)	22	180	12
총 간병비용 (만원)	2,035	18,000	1,000
본인(가계)부담 간병비용 (만원)	734	8,000	300

5060 세대는 노부모를 집에 모셔서 간병하기보다는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위탁하여 간병하고 있다. 노부모를 간병한 경험이 있는 경우의 38.8%는 병원에서 노부모를 돌보았고, 요양시설에서 간병한 경우가 두번째로 많은 19.7% 였다. 부모님 댁을 오가며 간병한 경우가 16.7%였으며, 응답자 본인의 집이나 형제자매의 집에서 노부모를 간병한 경우는 각각 13.9%, 9.6%다. 5060 자녀의 집에 모셔 간병한 경우만 한정해 재택간병이라고 봤을 때, 재택간병이 23.5%이고 전문 시설로 옮겨 간병한 시설간병이 58.5%다. 시설간병이 재택간병의 2배 이상을 차지했다. 아무래도 5060 세대의 노부모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 거동이나 씻기 등 일상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거나 병환이 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설에서 간병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는 가벼운 외병 상태일 때 집에서 간병을 하다가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전문 요양시설이나 병

〈도표 2-7〉 노부모 간병 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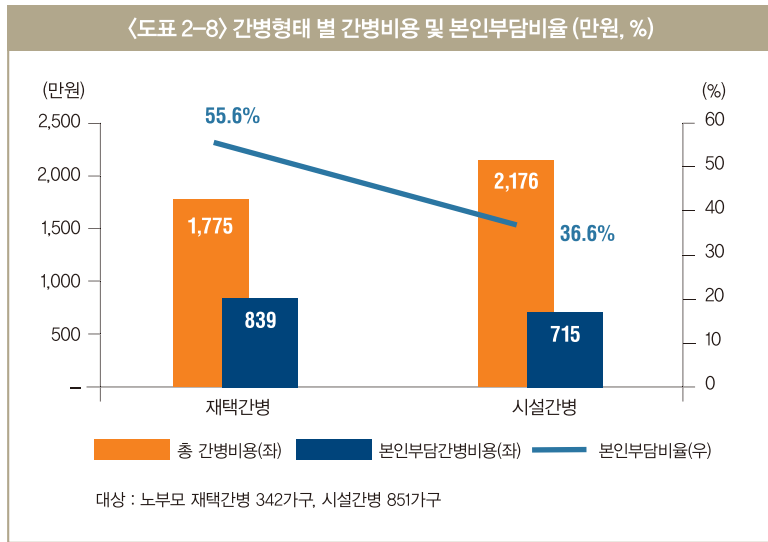
원으로 옮겨 간병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인 규범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도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김유경 외(2015)은 신체적 쇠약 및 질병으로 인해 의존적인 상태에 놓인 노부모를 집에서 부양해야 한다는 규범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맞벌이로 인해 가족 내에서 부양할 사람이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강화되고 가부장적 분위기가 약화되는 추세, 이혼과 재혼 등 가족 관계의 빈번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재택에서 시설로 노부모 간병이 옮겨가게 된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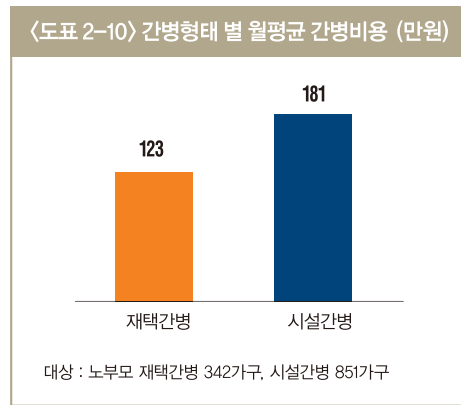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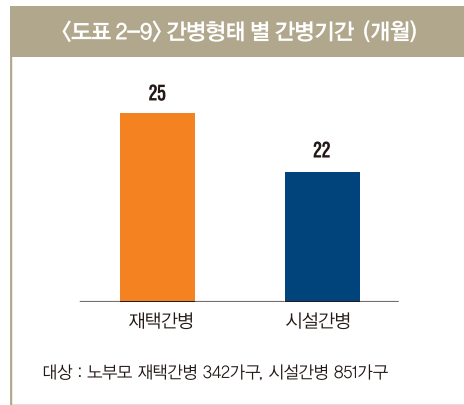
재택간병은 1775만원, 시설간병은 2176만원 들어

노부모를 어떤 방식으로 간병했는지에 따라 5060 세대가 겪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이 다르다. 먼저 비용 측면이다. 재택간병의 경우 간병비용으로 1775만원이 들었다. 이는 2176만원이 소요된 시설간병의 80% 수준이다. 재택간병의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주된 간병담당자가 되기 때문에, 간병이나 전문 의료 인력이 필요한 시설간병에 비해 표면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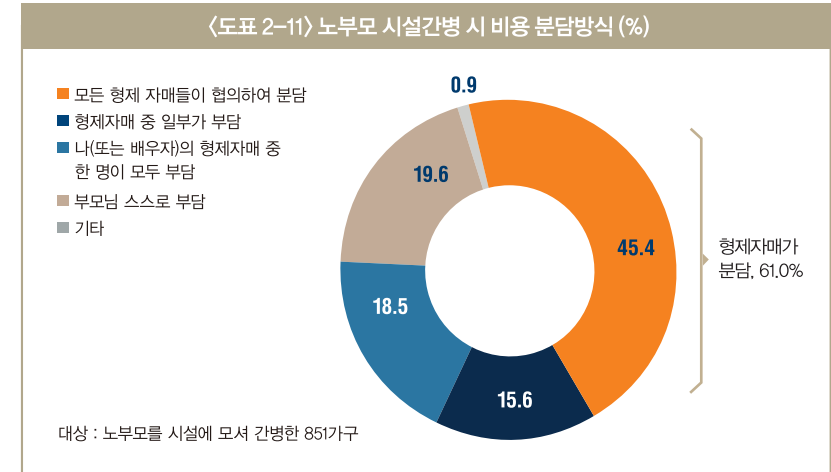
그러나 재택간병 시 응답자 본인(가계)이 낸 간병비 액수는 시설간병(715만원)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많은 839만원으로 조사됐다. 시설에서 간병할 경우 명확한 비용이 산출되고 이를 형제자매 또는 노부모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그러나 재택간병의 경우 주된 간병담당자의 노동비용을 포함한 정확한 비용 산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주로 부모를 간병하는 이들에게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재택간병을 했을 경우 간병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율이 55.6% 였으나, 시설간병을 했을 경우 36.6%로 시설 간병을 할 경우 비용 부담이 더 원활한 듯 보인다.



재택간병을 할 때 평균 간병기간은 25개월이었으며, 시설간병은 22개월 동안 지속됐다. 월 평균 간병비를 계산해보면, 더 짧은 기간에 많은 비용이 드는 시설간병의 부담이 더 크다. 재택간병의 월평균 간병비는 123만원, 시설간병은 181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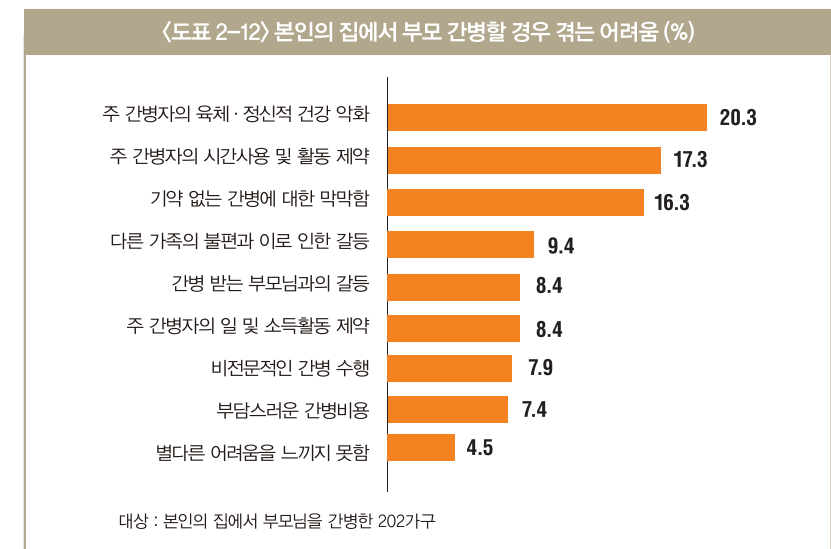
다행히 5060 세대는 많은 경우 노부모 간병비용을 형제자매가 부담하고 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노부모를 모셨던 경우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절반(45.4%)이 '모든 형제자매들이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 했다고 답했고, 형제자매 중 일부가 부담한 경우도 15.6% 다. 자녀들이 비용을 나눠 낸 경우가 61%이며, 어느 한 자녀가 비용을 전담한 경우가 18.5%, 부모님이 스스로 감당한 경우가 19.6% 였다.



재택간병의 주 간병자, 스트레스 많고 자유시간 없어

노부모를 어디에서 간병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어려움도 다르다. 집에서 간병했던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된 간병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유의 제약에 있다. 24시간 노부모 곁에 붙어 일상을 보조해야 하기에 육체적 피로가 쌓일 뿐 아니라 아픈 사람을 대하며 늘 밝은 정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재택간병 시에 간병 외에 일상적인 가사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간병자는 과중한 일에 시달리게 되고 자신만의 여유 시간을 갖거나 원하는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간병을 계속해야 할 지 예측하기 어려워 기약 없는 간병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고, 함께 살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노부모를 집에서 간병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저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요양원에 모셔라.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니까 불쌍하잖아요. 시어머니는 안 가시겠다고 하고.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설득을 하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기약이 없잖아. 막막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나? 어머니가 더 나빠지면,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중증이 되면 병원에 모시겠다고 그러니까...(답답하죠)
 나도 어떻게 늙을지 모르는데...”. (강OO, 61세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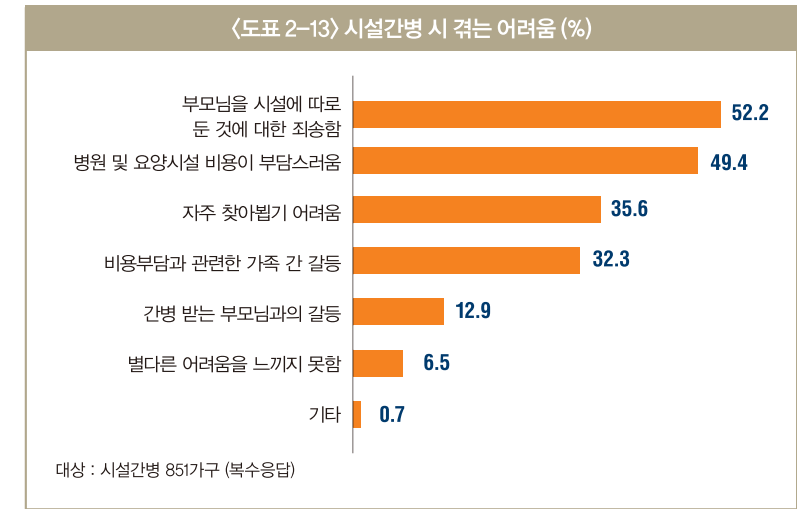
집에서 시어머니를 간병했던 60대 여성의 경우 기약없이 이어지는 간병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고, 나아가 자신도 점점 나이가 들고 건강을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다. 자신도 고령의 노인이 되어 부양을 받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더 좋지 않은 노부모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 소위 노노(老老)케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시설간병,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죄송해

한편,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노부모를 모시고 간병하는 경우 경험하는 어려움은 재택간병과는 다소 다르다. 크게 비용과 관련된 부담감과 정신적인 부담감으로 나뉘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 시설간병의 경우 총 간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다. 노부모를 시설에서 간병한 이들의 절반(49.4%)은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입원 또는 입소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고,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게 되면 그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의도치 않게 비용 부담과 관련해 형제자매,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시설간병에 참여한 열 명 중 세 명 이상(32.3%)이 그와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시설에서 노부모를 간병한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 심리적인 부담감이라 할 수 있다. 부모님을 자신이 직접 모시지 않고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홀로 둔 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진 이들이 과반 수(52.2%)다. 아직까지 5060 세대의 다수는 여력이 된다면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부모 세대 역시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길 원치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5060은 자신들의 규범적 원칙과 노부모의 의사에 반하게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노부모를



맡기게 됨에 따라 몸은 편할지 몰라도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5060이 그들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원격부양’이다. 농경중심 사회에서 자연스러웠던 대가족 체제는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무너지고, 핵가족 체제가 자리잡았다. 5060세대의 어린 시절, 조부모가 자녀, 손주들과 함께 살며 부양과 간병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뿐 아니라 60대는 장성한 자녀들과 손주들의 부양을 받기에 충분한 나이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5060은 부양을 받을 만한 나이에 아직도 노부모를 부양하고 간병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더구나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런 상황에 놓인 5060세대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를 다하되, 현실과 타협하는 방식이 ‘원격부양’은 아닐까. 노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고 떨어져 지내며 경제적인 지원을 다하는 것, 노부모가 간병이나 일상생활에 보조가 필요할 때 집에서 직접 간병하기보다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모시는 것이 갖가지 부양책임과 노후불안에 놓인 5060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KEY 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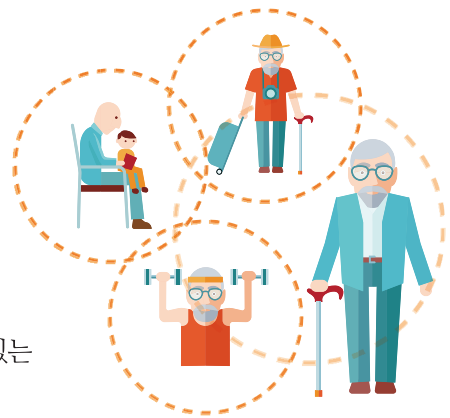
3

황혼육아

‘손주병’이라는 말이 있다. ‘상사병’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싶어 않는 병인가 하니, 전혀 다른 뜻이다. 조부모가 어린 손주를 돌보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골병’든다는 의미다. 이런 조부모들이 얼마나 많으면 2012년 국립국어원에서 신조어로 지정까지 했다. 젊은 사람들도 온종일 아이를 돌보다 보면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데 나이든 조부모는 오죽할까. 아침부터 밤까지 손목, 허리, 무릎 통증에 시달리다 보면 파스와 진통제를 달고 살게 된다. 또 아이와 온종일 붙어 씨름하면서 느끼는 고립감, 육아방식을 놓고 벌어지는 자녀와의 갈등, 노후를 즐길 시간과 여유가 없는 생활로 인해 지치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막상 황혼육아를 하며 느끼게 되는 즐거움과 소소한 행복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황혼육아는 5060 세대의 끝나지 않은 가족 부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외벌이로는 먹고 살기 빠듯한 세상, 남편과 아내 모두 경제활동으로 바쁜 맞벌이 부부는 2016년 기준 전국 530만 쌍에 달한다. 이들의 아이 양육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64%가 조부모·인척에게 자녀를 맡긴다. 황혼육아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확산되고 있으며, 돌봄 당사자인 5060은 이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꺼내놓고 있다. 황혼육아의 현실을 짚어보고, 황혼육아가 5060 세대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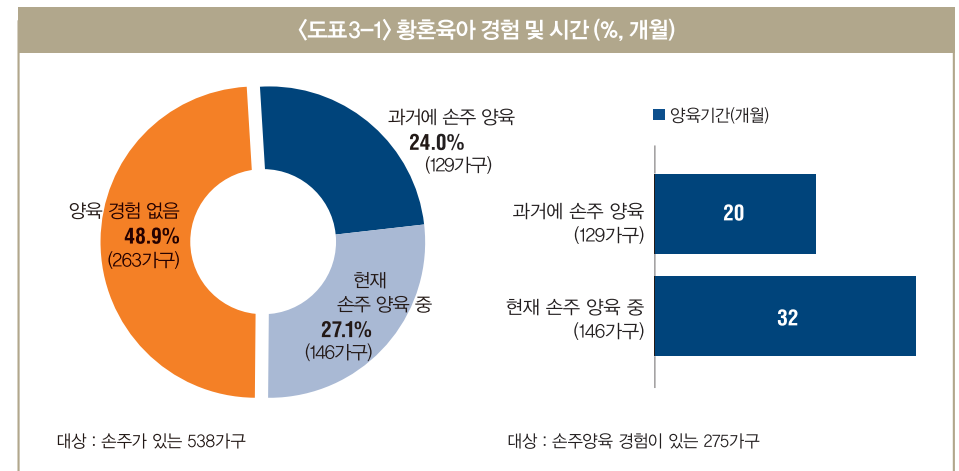


1 손주 둔 5060 절반은 황혼육아 중이거나 경험 있어

현재 황혼육아 중인 가구 32개월째 손주 돌봐

조사 대상인 5060 세대 2001가구 중, 손주를 둔 가구는 538가구다. 조사 결과 538가구 중 절반인 275가구(51.1%)가 손주를 현재 양육하고 있거나, 과거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이때 손주 양육은 ‘주 2회 이상 또는 하루 3시간 이상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손주(미취학 아동)를 돌보는 경우’를 의미한다.

황혼육아를 경험한 51.1%(275가구) 중 과거에 황혼육아를 했던 가구가 24%(129가구), 현재 진행형인 가구가 27.1%(146가구)다. 과거 황혼육아를 한 가구는 평균 20개월간 아이를 돌봤고, 현재 진행형인 가구는 평균 32개월째 아이를 돌보고 있다. 황혼육아가 조부모 삶의 일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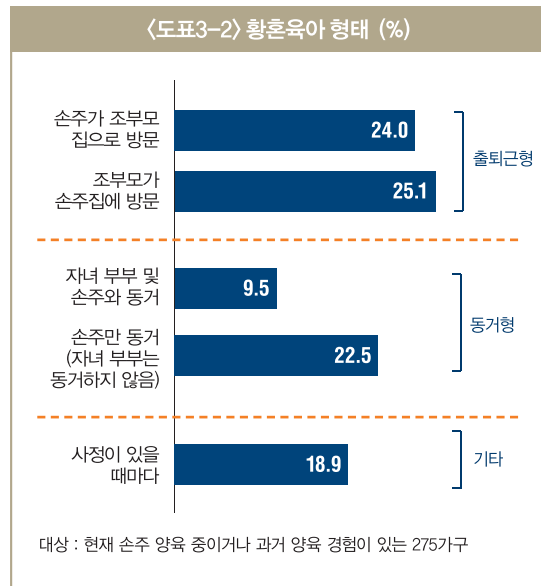


황혼육아 방법은 ‘출퇴근’이 절반

황혼육아를 했거나 하고 있는 275가구를 대상으로 황혼육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봤다. 본인이나 손자녀가 서로의 집으로 오가는 ‘육아 출퇴근’이 대략 절반 정도다. 조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의 집에 방문해 손주를 돌보는 비율이 25.1%, 손주가 자신의 집으로 온다는 비율이 24%다. 출퇴근이 쉬워지면 두 집 간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조부모 부부와 자녀 부부가 손주 양육을 위해 한 동네에 거주하는 ‘신 3대 가족’이 탄생하는 계기다. 이들은 가깝게는 동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거나, 같은 라인의 위·아랫집에 각각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기도 한다. 이는 세대별 거주공간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편하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육아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심층 인터뷰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러한 선호가 나타난다.

“딸애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이상적으로 같은 아파트나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서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은데...”(오OO, 56세 여)



두 집 사이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손주만 조부모의 집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 자녀 부부 없이 손주만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답한 세대가 22.5%에 달한다. 육아를 위해 아예 조부모의 집으로 돌아온 ‘리터루족(族)’도 있다. 리터루족이란 ‘돌아가다(return)’와 ‘깡겨루족’의 합성어로 결혼 후 독립했다가 높은 집값과 육아 문제 등으로 다시 부모님 댁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본 조사에서 황혼육아가

구 열 집 중 한 집(9.5%)은 자녀 부부와 함께 살며 손주를 맡아 돌본다. 육아 문제가 가족의 거주 행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2 체력적 부담은 크지만 대가는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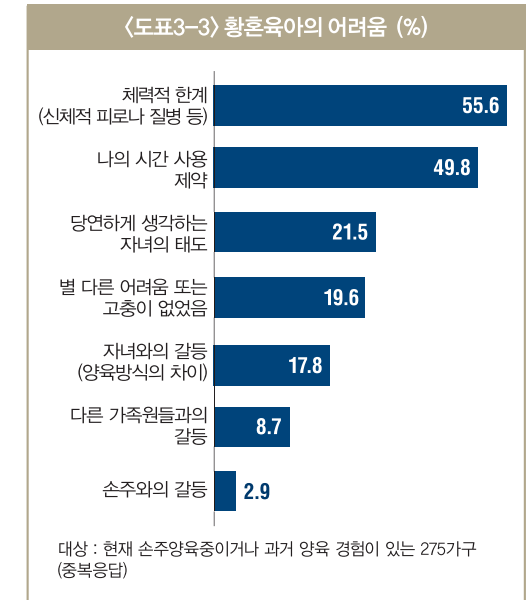
손주를 돌보며 제일 힘든 건 ‘체력적 한계’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예전 같지 않은 몸’이다. 황혼육아를 경험한 이들에게 손주를 돌보면서 느낀 어려움을 물었더니 1위는 체력적 한계(55.6%, 중복응답)로 나타났다. 특히 관절이나 디스크 등이 약해진 조부모들에게 5~10kg이 나가는 손

주를 수시로 안거나 업어주는 일은 큰 부담이다. 아이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와 손목에 부담을 줘 디스크나 건초염 등 통증이 생긴다. 또 아이를 안고 일어설 때는 무릎관절이나 고관절에 무리가 간다. 때문에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은 허리 통증은 물론 손목터널 증후군, 퇴행성관절염 등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심층 인터뷰에서 한 참여자는 황혼육아의 힘들음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한 두 번, 어쩌다 봐주면 상관없지만 매일 가져다주고, 들었다 놔다 하니 이게 운동을 안했던 근육은 근력이 약해서 인대가 나가더라고... 노인네들이 얘기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홍OO, 62세 여)

스트레스로 심장 등 신체적 질환이나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003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4년 간 일주일에 9시간 이상 손주를 돌본 60세 전후 노인 1만 여명을 조사했더니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해 심장병 발병율이 55%나 높은 것으로 나왔다. 나이와 함께 심혈관계에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노인들이 육아로 인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육체피로에 노출되면 호르몬 작용으로 쉽게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시카고 대학교의 아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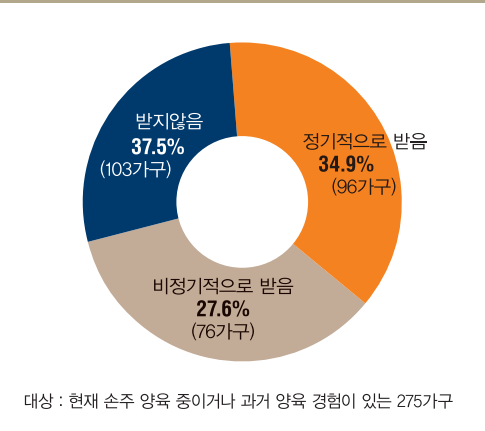


의 2006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5명 중 4명(79%)이 건강 문제를 호소했으며, 3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을 느꼈다. 실제 황혼육아를 하게 되면 아이에게서 한 시도 눈을 땔 수 없다. 시간이 나질 않으니 취미생활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림의 떡이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산후우울증 못지않은 ‘황혼육아우울증’이란 말이 퍼질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이런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때문일까, 2013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노인들이 가장 원치 않는 노후생활은 ‘손자녀 양육’이다. 60대 이상 고령자 중 노후에 손자녀 양육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28.2%에 그쳤다. 참고로 취미활동은 83.4%, 소득창출 활동은 73.8%가 희망했다. 이처럼 손자녀 양육은 조부모에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도표3-4〉 황혼육아에 대한 양육수고비 수령 실태 (%)



정기적으로 양육수고비 받는 가구는 34.9%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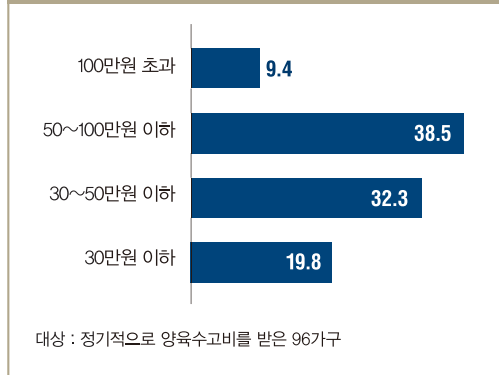
황혼육아의 힘겨움에 비해 조부모가 받는 경제적 보상은 적다. 양육수고비(양육에 들어가는 실비 외 순수한 수고비)를 받지 않는 집도 많고, 받더라도 금액이 적다. 조사 결과, 양육에 대한 수고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집은 34.9%에 불과했다. 비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답한 27.6%를 합해도 양육수고비를 받는 가구가 총 62.5%에 그

친다. 나머지 37.5%는 양육수고비를 따로 받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양육수고비를 받은 96가구의 평균 수령액은 70만 원이었다. 외부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면 적어도 150~200만 원이 드는데, 평균 수령액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구간별로 나누어보면 50~100만원 이하(38.5%) > 30~50만원 이하(32.3%) > 30만원 이하(19.8%) > 100만원 초과(9.4%)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조부모가 양육을 보조하는 형태에 따라 노동강도와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절반 이상(52.1%)이 월 50만원 이하의 '용돈' 수준 양육수고비를 받는다. 많은 수의 조부모들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060 세대 대부분은 양육수고비를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본다. "조부모는 손주를 돌보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양육수고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전체 5060 응답자 5명 중 4명(81.9%)이 찬성했다. 혹시 황혼육아를 직접 했던 5060의 의견

〈도표3-5〉 황혼육아 양육수고비 금액 (%)



은 다들까 싶어 경험자만 따로 떼어내 따져봤다. 경험자 중 75.6%가 찬성했다. 실제 정기적으로 양육수고비를 받고 있는 집(34.9%)의 두 배가 넘는다. 즉 마음으로는 양육수고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된다는 이야기다. 자녀에 대한 희생도 모자라,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희생하고 있는 것이 5060 세대의 현실이다. 한 응답자는 양육수고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결국 말 못할 '내 희생'으로 마음 속에 쌓이게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돈을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해줬다’, ‘고맙다’ 그런 계 눈에 띄지 않게 마음 속으로만 쌓여요. 결국 못받은 내 희생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액수가 얼마가 되든, 서로 합의해서 딱 정리하는 게 기대나 실망, 나중의 서로 간의 갈등에 있어서 훨씬 더 해결이 쉬울 것 같아요” (황OO, 55세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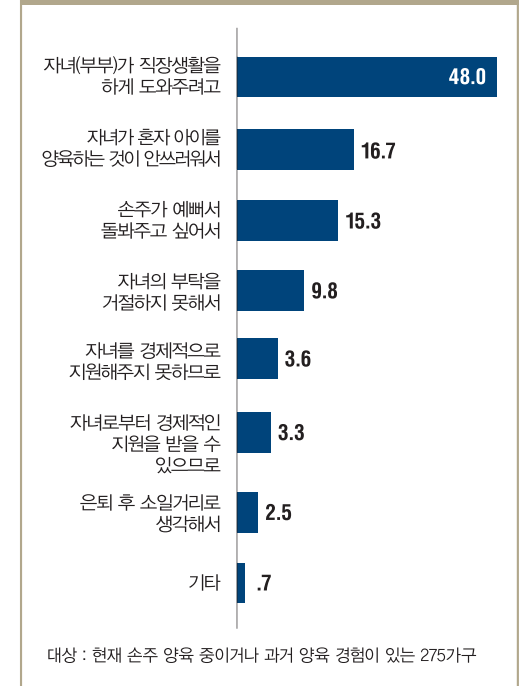
3 황혼육아는 자녀사랑의 연장선

황혼육아 하는 이유는 '자녀부부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한 건강식품 CF에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곧 복직을 앞둔 워킹맘이 친정에 다녀가는 모습을 그렸다. 오랜만의 복직도 겁나지만 엄마로서 아직 어린 딸(3대)에게 소홀해질까 봐 걱정된다는 딸(2대)에게 친정엄마는 “넌 네 딸 걱정, 난 내 딸 걱정”이라며 건강식품 선물세트를 전해준다. 따뜻한 모성이 할머니-엄마, 엄마-딸에게로 되풀이 되는 장면이다.

황혼육아도 결국 “내 딸, 내 아들 걱정”에서 시작된다. 조사 결과, 5060 조부모가 황혼육아를 시작하게 된 계

〈도표3-6〉 황혼육아를 시작하게 된 계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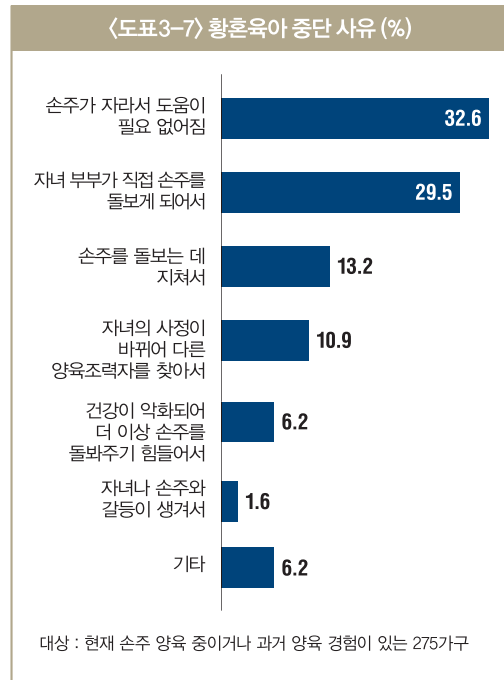
기1위는 '자녀(부부)가 직장생활을 하게 도와주려고'(48.0%)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절반 이상이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통계와도 상통한다. 2위는 '자녀가 혼자 양육하는 것이 안쓰러워서(16.7%)'였다. 즉, 많은 5060 세대가 자녀 부부가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이를 대신 맡거나,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돕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5060의 자녀사랑은 낳고, 기르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결혼한 자녀가 낳은 손자녀를 기르는 것까지, 하염없이 연장된다. 심층 인터뷰에서 한 응답자는 손주 넷을 돌보느라 힘겹지만, '엄마'로서 해주고 싶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친손자는 100일 지나고부터 며느리가 일을 가서 그 후로 제가 보고 있고, 외손자도 옆 동네에 살아요. 외손자는 아들만 셋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육아를 혼자 할 수 밖에 없었지만 딸은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깐.. 내가 못 받은 것을 딸한테 해주고 싶어요” (권OO, 60세 여)

“나 아니면 돌봐줄 사람 없어”

황혼육아는 손주가 충분히 자라거나,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된

다. 황혼육아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알기 위해 과거 손주를 양육했지만 지금은 그만둔 129가구에 황혼육아를 중단한 이유를 물었다. 1위가 손주가 자라서 더 이상 조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32.6%)로 나타났다. 2위는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여 직접 자식을 돌보게 된 경우(29.5%)다. 조부모 본인이 지쳐 쉬기 필요하거나(13.2%) 건강이 악화된 경우(6.2%)는 일부에 그쳤다. 한 번 손주를 맡았다면,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본인의 의지로 그만두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2015년 발간된 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손주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 중 73.8%가 '여건이 된다면 손주를 그만 돌보고 싶다'고 답했다. 힘들고 지쳐 그만두고 싶어도 자신이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황혼육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양육 환경은 이와 거리가 멀다. 주 양육자 홀로 육아를 24시간 감당하게 되는 현실에 '독박육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5060 세대 역시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맞벌이든 아니든 부모 둘이서만 손주를 키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는 의견에 78.8%가 동의했다. 결국 둘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자녀 부부가 조부모인 5060 세대에게 손을 내밀면, 조부모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하기가 어렵다.

조부모 외에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도 황혼육아가 늘어나게 만드는 원인이다. '맞벌이가정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부담을 지고 있다'는 말에 5060 대부분(88.2%)이 찬성했다. 2014년 이뤄진 황혼육아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2%가 '전문육아도우미보다는 친가나 외가에서 자녀를 돌봐

● 해외의 황혼육아 지원 제도

유럽이나 호주, 일본 등에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조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가 쓸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조부모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적 지원도 물론이다. 영국에서는 자녀가 12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하는 동안 부모가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보험 크레딧(NI credits)이 주어진다. 만약 부모가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가까운 가족 혹은 친척이 대신 해당 크레딧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조부모 크레딧'이다. 스페인 은행인 산탄데르는 손주가 생긴 직원에게 1년간 조부모 육아 휴직을 준다. 호주 은행인 웨스트팩도 손주가 있는 직원이 최대 52주간 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조부모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속속 늘고 있다. 다이이치생명보험은 지난 2005년 손주가 태어났을 때 쓸 수 있는 손주 출생 휴가를 도입했다. 도호은행은 2015년 '이쿠마고휴가' 제도(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해 조부모가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유급휴가를 최대 120일까지 모아서 간병이나 가족 행사 등 손자, 손녀를 위해 쓸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은행 인사 담당자는 '조부모의 도움이 있으면 아이를 낳기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자료 참조 : 중앙일보 '황혼 육아 늘면서... 유럽은 조부모도 육아휴직' 2016.4.22
육아정책연구소, '해외육아정책동향' 중 영국 및 일본 사례

주는 것이 좀 더 마음 편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부러운 일'이라는 데도 10명 중 8명(80.1%)이 공감하였다. 심층인터뷰에서 한 응답자는 자녀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 토로했다.

“*(황혼육아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요새 보면 어린이집 구타 사건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식들 세대가 불안하게 생각해. 내 자식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많더라고*”(류OO, 60세 남)

황혼육아는 결국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지원 미비, 자녀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데 익숙한 5060 세대의 태도가 결합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KEY WORD

4

더블케어



5060 세대는 스스로도 낡은 세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누가 굳이 말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노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안고 산다. 성인이 되었지만 독립까지 좀 더 유예기간이 필요한 자녀들, 생애 말기로 접어들면서 심화된 돌봄과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노부모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두고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는 5060 세대다.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인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동시적 부양, 더블 케어 부담을 살펴보고 이 부담을 안고 있는 5060세대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 지 전망해 본다.

1 더블 케어 비용, 소득의 20%에 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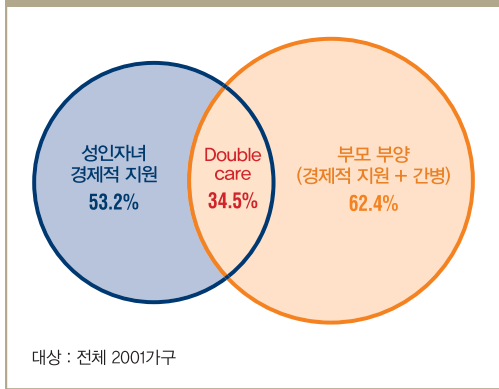
5060 3가구 중 1가구는 더블 케어 중

5060 2가구 중 1가구(53.2%)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성인자녀를 부양한다. 이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거나 학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을 준다. 한편, 5060 가구 중 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거나 간병을 하는 등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더 많아 62.4%에 이른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생활을 막 시작했을 5060 세대 대부분은 자신들의 노후

더블 케어 (Double care)

: 생활비나 목돈을 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성인자녀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 간병을 하며 노부모를 부양하는 상황

<도표 4-1> 5060 세대의 부양 부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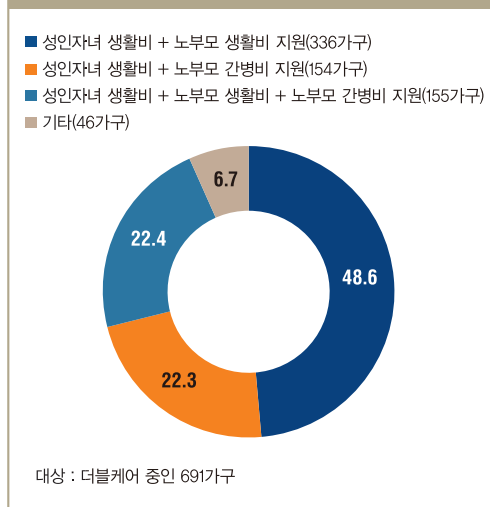


만 신경써도 부족할 시점인데 아직도 부양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양쪽에 대한 부양부담이 동시에 닥치는 경우다. 현재 아래로는 성인자녀를, 위로는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른바 ‘더블케어’ 상태에 놓인 이들이 전체의 34.5%(691가구)에 이른다. 세 집 당 한 집 꼴이다.

5060 세대가 더블케어에 놓이는 데는 노부모보다 자녀 측 이유가 크다. 더블케어 중인 5060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비교해봤다. 더블케어 중인 5060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25세로, 더블케어를 하지 않는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30세)에 비해 낮다. 또한 더블케어 중인 가구는 성인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86.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이들 성인 자녀는 대부분 미혼이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5060 세대 중 출산이 늦어 자녀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거나,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더블케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팍팍한 경제 환경 속에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지고 만혼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5060 세대가 더블케어로 떠밀리는 형국이다.

더블케어에서 성인자녀 부양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매월 정기적인 생활비를 주는 것이다. 더블케어 691가구 중 93.3%인 645가구가 성인자녀에게 매월 생활비를 주며, 목돈만 주는 경우는 6.7%다. 성인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기본으로 하여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주는 경우(336가구, 전체의 48.6%), 노부모 간병을 하는 경우(154가구, 전체의 22.3%), 노부모에게 생활비도 주면서 간병도 하고 있는 경우(155가구, 22.4%)로 나뉠 수 있다.

<도표 4-2> 더블케어 가구의 부양 형태 (%)



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생활비 주는 경우 소득의 20%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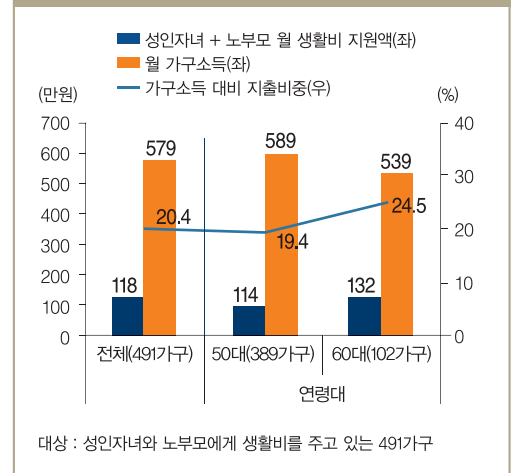
더블케어가 5060 가구의 가계 경제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고 있는 491가구를 구분 했다. 이들이 매달 성인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월평균 78만원이며, 노부모에게는 월 40만원을 준다. 양 쪽에 주는 생활비를 합하면 가구당 평균 118만원이다. 이는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 579만원의 20.4%에 달하는 수준이다.

5060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70% 수준¹⁾임을 고려하면, 더블케어 가구는 벌어들인 소득 중 가계 유지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나머지의 상당부분을 더블케어에 쓰고 있다.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다.

50대보다 60대가 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주는 것에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60대 가구가 50대보다 동거하는 성인자녀 수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 수가 적으면서도 평균적으로 더 많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도 근소하지만 더 많다. 그런데 정작 60대의 소득은 50대보다 적다. 50대는 월소득의 19.4%, 60대는 월소득의 24.5%를 더블케어 생활비 지원에 쓴다.

퇴직 후 노후생활에 접어들면 점차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은 50대까지 증가하여 50대에 가장 높고, 이후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곡선을 그린다. 더블케어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소득 감소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노부모와 성인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줄이지 못한다면, 5060 가구의 경제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도표 4-3> 성인자녀 및 노부모 생활비 지원액 및 가구소득 대비 지출비중(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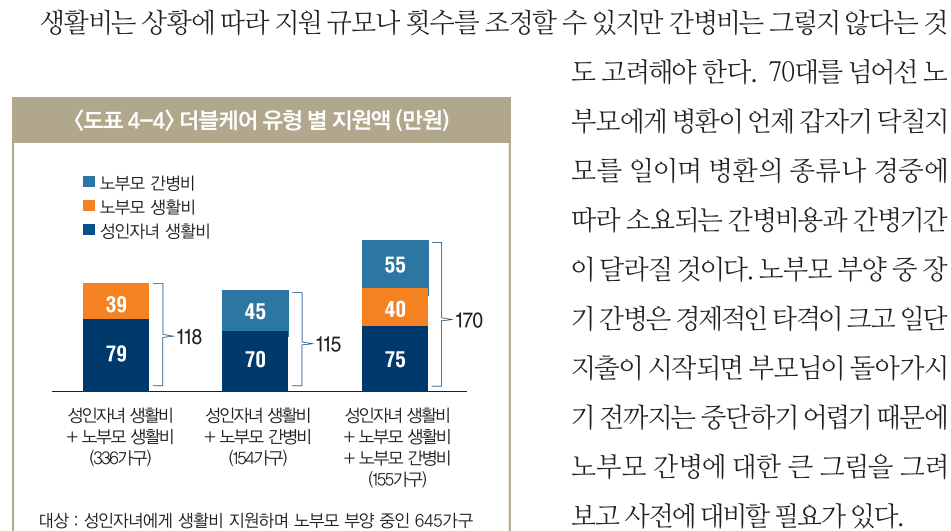
¹⁾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50대의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대비 소비지출비중)은 68.3%이며, 60대 이상의 경우 70.5%이다.

노부모 간병이 더해지면 더블케어 부담 가중

더블케어의 유형에 따라 매월 지출하는 비용에 차이가 나는지 구분해 봤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동일하되 노부모에게 생활비만 주는 경우, 노부모 간병비만 부담하는 경우, 노부모 생활비에 간병비까지 부담하는 세 가지 형태를 비교했다. 매월 소요되는 간병비는 각 가계가 부담한 간병비를 간병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했다. 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생활비만 주고 있는 경우 약 118만원을 지출했다.

성인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며 노부모를 간병하고 있는 가구는 성인자녀 생활비로 70만원, 노부모 간병비로 45만원을 지원해 115만원을 썼다. 성인자녀 생활비 지원, 노부모의 생활비 지원 및 간병비 지원의 세 가지 짐을 지고 있는 가구는 자녀에게 월 75만원의 생활비를, 노부모에게는 월 40만원을 지원하며, 간병비로 월 55만원을 썼다. 합하면 월 170만원에 달한다. 세 가지 부양의 짐을 진 이들 155가구의 평균 월 소득이 562만원임을 생각하면, 월 소득의 30%가 정기적으로 더블케어에 쓰이는 셈이다.

성인자녀와 노부모 양쪽을 동시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 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데, 여기에 간병비 부담이 추가된다면, 이 상황을 무리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전반적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우리나라의 5060 세대에게 은퇴시기에 닥친 더블케어는 경제적 부담감을 넘어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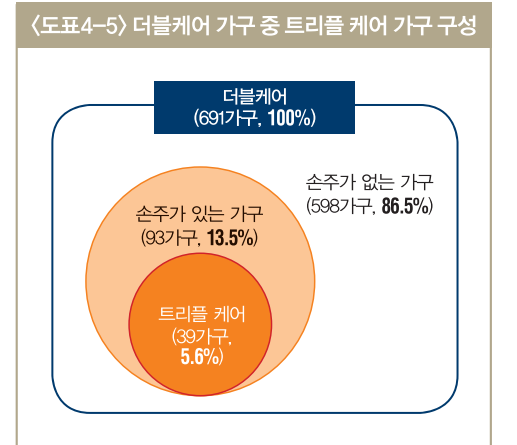


2 자칫하면 '트리플 케어'로 이어져

손주 있는 더블케어 가구의 41.9%는 트리플 케어 중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막중한 짐인 더블케어. 그런데 더블케어가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부양 부담이 지워질지 모른다. '황혼육아'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부양하며 손주 양육에도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트리플 케어' 상태에 놓인 가구는 39가구다. 전체 더블케어 가구 중 5.6%에 해당한다. 더블케어 가구 중 손주가 있는 93가구 기준으로 보면, 손주가 있는 더블케어 가구 다섯 집 중 두 집(41.9%)은 더블케어를 하면서 추가로 손주도 봐주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허리가 휘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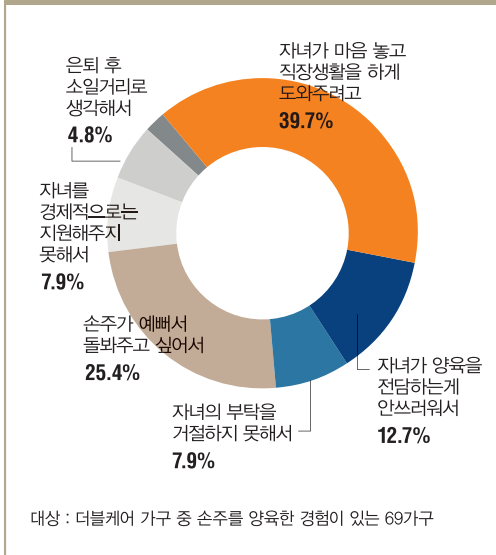
이들 트리플 케어 가구가 손주를 돌봐준 기간은 평균 26.5개월이다. 더블케어 가구 중 노부모를 간병한 경우 평균 간병기간이 22개월이었는데, 통상 노부모를 간병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손주를 돌보는데 쓰임을 알 수 있다. 트리플 케어 중인 5060 10가구 중 3가구(28.2%)만이 손주를 돌보며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양육 수고비를 받고 있으며 매월 약 55만원 정도를 받는다. 그런데 손주를 돌봐주면서 양육수고비를 받지 않는 경우(43.6%)가 받는 경우보다 더 많다. 손주를 돌보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체력의 소진을 고려하면 고강도의 노동인데,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루 최대 24시간, 1~2년 이어지는 손주 양육의 노동을 금액으로 수치화한다면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지원에 버금간다. 성인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외에 고강도의 돌봄 노동까지 하고 있는 트리플 케어 가구는 그야말로 가족 부양의 멀티플레이어다.



손주 생기면 '트리플 케어'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더블케어' 가구가 손주 양육의 부담까지 동시에 안게 되어 '트리플 케어'로 변하는 것은 어찌면 시간 문제일지 모른다. 사회적으로 황혼 육아가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그

〈도표4-6〉 더블케어 가구 중 손주양육경험자의 손주 양육 참여 이유 (%)



주요 이유는 맞벌이가구의 증가에 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30대 가구주 가계의 맞벌이 비중은 44.6%에 이른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편화되었을 뿐 아니라, 외벌이로는 넉넉한 살림을 살기 어려운 팍팍한 경기가 계속된 탓이다. 젊은 세대가 맞벌이를 지속하려면 어린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키울 수밖에 없다. 가장 쉽고 믿을 만한 선택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가 조부모 등에게 육아 지원을 받는 비율

이 2004년 23.6%에서 2014년 53%까지 증가했다. 종합해보면, 30대 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그들의 부모에게 손주양육을 맡긴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현실이 확인 되었다. 더블케어 가구 중 손주양육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손주를 양육해주었던 주된 이유를 물었다. 대부분이 자녀의 상황을 도와주기 위한 이유였다. 응답자중 가장 다수인 39.7%는 ‘자녀가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려고’ 손주 양육에 참여했다고 하였다. 자녀 부부의 맞벌이가 황혼 육아의 주된 이유가 됨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지표다. 그 외에 ‘자녀가 양육을 전담하는 게 안쓰러워서’ (12.7%) 또는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7.9%) 손주를 돌봐주었다는 응답이 눈에 띈다. 모두 자녀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주를 양육하게 된 경우다. 물론 ‘손주가 예뻐서 돌봐주고 싶은’ 자발적인 이유도 25.4%나 됐지만, 비자발적인 이유가 더 다수라 봐야 한다. 실제 육아정책연구소의 2015년 조사도 조부모들이 손주를 돌봐주는 데는 본인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24%)인 이유보다 비자발적 이유(76%)가 훨씬 더 많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해주는 것은 조부모보다는 자녀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5060 가구가 현재 더블케어 중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자녀가 아이를 출산하고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더블케어 가구는 자칫 트리플 케어까지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3 ‘케어 푸어(Care Poor)’, 더블케어의 잠재적 위험

성인자녀와 노부모 생활비 주는 더블케어 가구 22%는 케어 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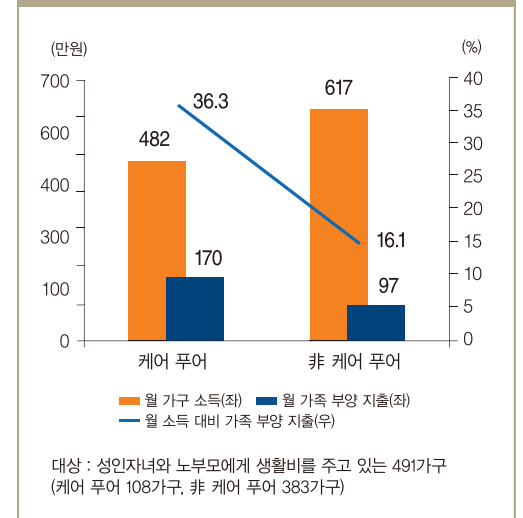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푸어(poor)’의 사회다. 하우스푸어, 카푸어 등 수많은 ‘푸어’가 난무한다. ‘푸어’는 특정 지출에 집중하거나 무분별하게 소비함으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5060 세대가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가족 부양을 위한 지출에 집중하거나 은퇴 생활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가족 부양과 관련된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노후생활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을 ‘케어 푸어’라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푸어’ 가계를 지칭하는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가족 부양과 관련한 지출은 가족의 현재 상황이나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출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선다고 ‘푸어’라 지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가족 부양 지출이 가구 소득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일 때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탐색적 차원에서 다소 상대적인 개념으로 ‘케어 푸어’를 정의해 보았다. 현재 월 소득 대비 가족 부양(성인자녀 및 노부모 생활비 지원) 지출 비율을 산출해 이 비율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가구를 ‘케어 푸어’로 구분했다. 이들 가구가 다른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소득 대비 가족 부양 지출이 큰 편이라 현재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는 부분이나,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주고 있는 더블케어 가구(491가구) 중 케어 푸어 가구는 108가구로 전체의 22%다. 케어 푸어 가구의 월 소득 대비 가족 부양 지출(성인자녀와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생활비) 비율은 평균 36.3%로, 케어 푸어가 아

〈도표 4-7〉 케어 푸어 여부에 따른 가구 소득 및 가족 부양 지출 (만원, %)



년 가구(383가구) 평균인 16.1% 보다 약 20% 포인트 높다. 케어 푸어 가구는 케어 푸어가 아닌 가구에 비해 대체로 월 가구 소득이 적은 반면, 가족 부양 지출은 월등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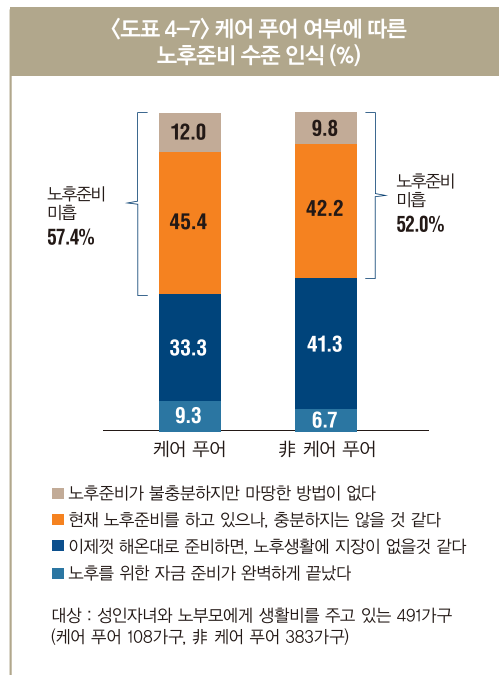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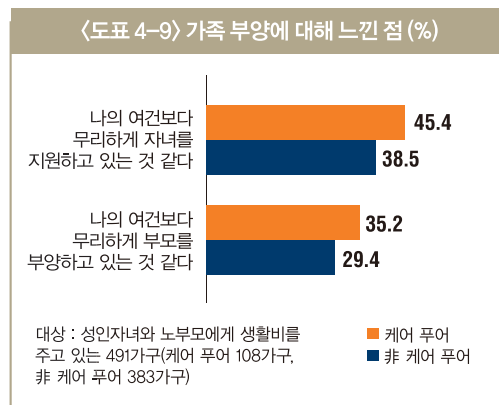
케어 푸어 가구, 가족 부양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고 느껴

케어 푸어 가구는 현재 자신들이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는 정도가 자신들의 가능한 여건보다 과도한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케어 푸어 가구의 45.4%가 여건보다 무리하게 자녀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고, 35.2%는 여건보다 무리하게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했다. 노부모 보다는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과도하다고 느끼는 편이며, 전반적으로 케어 푸어가 아닌 가구보다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케어 푸어 가구 스스로가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수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은 다행이다. 향후 노후를 생각했을 때, 가족 부양 수준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케어 푸어 5가구 중 3가구는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고 인식

다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가구 소득 중 많은 부분을 가족 부양에 지출하는 케어 푸어 가구 5가구 중 3가구(57.4%)는 스스로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케어 푸어 상태가 아닌 가구(52%) 보다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다소 높다.

노후준비 수준에 대한 지각에 있



어 케어 푸어 가구와 케어 푸어가 아닌 가구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큰 것은 아니지만,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0%에 가깝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지영 외(2009)나 정지영 외(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은퇴자금이 실제보다 더 충분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케어 푸어 가구 중 노후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7.4%이지만 실제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이들은 더 많을 수 있다.

케어 푸어 가구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앞서 케어 푸어 가구 일부가 스스로 자신들의 여건보다 무리하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과도한 가족 부양 지출이 케어 푸어 가구의 노후 준비를 저해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해외에서도 가족을 부양하느라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중노년층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메릴린치의 은퇴연구(2013)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절반 가량이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은퇴 생활을 희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들이 선택하는 희생의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퇴를 늦춰 더 오래 일함으로써 소득기간을 연장하는 방법(60%, 복수응답)이었다. 은퇴 후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방법도 많이 고려되었다(40%). 은퇴 생활의 안락함을 다소 포기하겠다는 응답은 36%를 차지했다.

5060 가구 중 더블케어를 하느라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케어 푸어는 62가구(108가구의 57.4%)로 전체 더블케어 가구의 9% 수준이다. 수치만 봐서는 많지 않다. 그러나 현재 더블케어를 하지 않지만 과거에 가족을 부양한 것에 발목이 잡혀 초라한 노후준비를 마주하고 있는 숨은 케어 푸어 가구가 훨씬 많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에 대한 부양을 포기하고, 이제라도 자신들의 노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제안일 수 있다. 당장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더 나은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5060 세대가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응 계획을 세우기를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부부간의 대화는 물론 이거니와 필요하다면 자녀들이나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형제자매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도 있다.

KEY WORD

5 동상이몽



최근 ‘동상이몽(同床異夢)’을 제목에 내건 TV 오락프로그램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남녀커플이 일상에서 겪는 서로 간 생각과 감정의 차이를 그려내는 프로그램이다. 결혼 25주년 은혼식을 치르는 어느 부부의 일상을 보다 보면, 함께 살아온 세월이 사반세기가 되어도 좁혀지지 않는 남녀의 차이가 눈에 띈다. 5060 세대가 가족을 부양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가족 내에서 담당하는 부양의 역할에서부터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간극이 있다. 또한 5060 부부의 동상이몽은 가장 마지막까지 노후를 함께 할 자신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드러난다. 5060 부부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30여년을 함께 지내오면서도 좁히지 못한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되짚어봤다.

1 부양과 가사의 주체, 5060 여성

노부모를 집에서 주로 간병하는 이는 여성

5060 세대의 가족 부양은 끝이 없다.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필요한 교육까지만 시켜주면 끝날 것 같았던 자녀 양육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성인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할 때까지 경제적, 비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보편화 되었고, 자녀 결혼과 맞물린 목돈을 지원하는 것도 흔한 일이다. 이 뿐 아니다. 더 부담스러운 노부모 부양도 있다. 노부모가 건

강할 때는 경제적 지원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몸이 아파 집중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의료비·간병비 등이 더 필요하고 직접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부양의 늪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5060 세대의 삶. 그런데 이들의 삶을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 보면,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부양의 책임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여성에게 쏠려있는 경우가 많다.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가사, 돌봄 노동 등 비경제적인 부담은 5060 여성의 몫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부모 간병이다. 노부모를 집에 모시고 간병할 때 주된 간병자는 여성으로 확인됐다. 본 조사에서 노부모 간병시 주된 간병자가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남성의 65.3%가 ‘배우자’라고 답했고, 여성의 71.7%가 ‘본인’이라고 답했다. 전체를 놓고 보면 노부모를 집에서 간병하는 경우 열에 일곱(69.3%)은 5060 여성이 간병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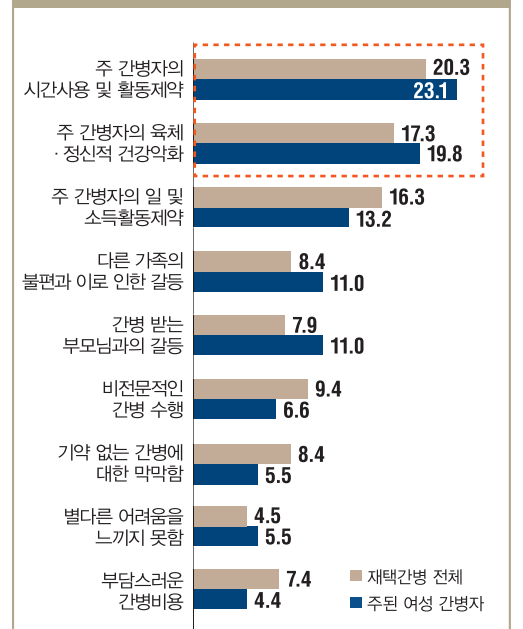
서울시 복지재단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일을 하며 아픈 부모나 배우자를 부양하는 서울 시민 200명 가운데 88.5%가 여성이다. 일을 통해 가계 수입을 충당하면서도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이들이 겪는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 조사에서도 노부모를 집에서 간병할 때 주된 간병자인 5060여성이 느낀 애로

<도표 5-1> 노부모를 집에서 간병한 경우 주 간병자 (%)

	남성 응답자	여성 응답자
병환 중인 부모님의 배우자	6.7	7.9
응답자 본인	22.7	71.7
본인의 배우자	65.3	12.6
본인의 자녀	0.0	0.8
본인의 형제자매 등	1.3	3.9
가족 외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4.0	3.1

대상 : 노부모를 집에서 간병한 202 가구

<도표 5-2> 재택간병 시 겪는 어려움 (%)



대상 : 본인의 집에서 부모님을 간병한 202가구 및 본인 집에서 주된 간병자였던 여성 9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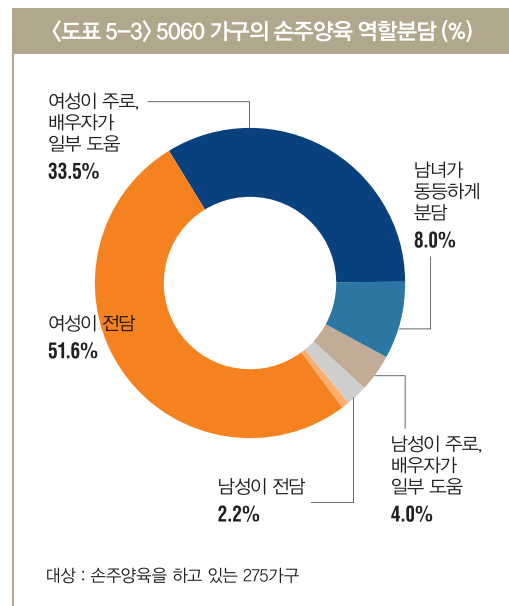
사항을 확인해 봤다. 직접간병을 하면서 와닿았던 어려움은 무엇이였을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시간사용과 활동 제약'이었고, 그 다음이 '주간병자의 육체, 정신적 건강악화'였다. 순위보다 중요한 것은 재택간병을 했다고 응답한 5060 세대 전체와 주된 여성 간병자들의 응답을 비교했을 때, 직접 간병을 한 5060 여성들이 주간병자의 활동 제약과 육체·정신적 건강악화에 대해 더 큰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사실이다.

손주 양육의 주체 역시 할머니

최근 들어 더 많은 5060이 감당하게 된 부양 책임 중 하나가 바로 손주양육이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가족 뒷바라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뿐. 손주가 태어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맞벌이라든가 해야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자녀 부부를 생각하면, 힘들게 취업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며 살고 싶다는 딸의 소원을 생각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 처지에 자식을 못 본 척 할 수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이다.

본 조사결과, 손주가 있는 5060 가구의 51.1%는 손주를 양육한 경험이 있다. 이들이 손주를 양육할 때의 역할 분담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와 배우자가 동등하게 역할을 분담한 경우는 8%에 불과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전담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남성의 37.8%가 배우자가 손주양육을 전담했다고 했고, 여성의 58.4%가 본인이 도맡았다고 했다. 이를 합해보면 5060

가구가 손주를 양육한 경우 절반 가량(51.6%)은 5060 여성이 손주양육을 전담했다. 나아가 여성이 주로 손주를 돌보고 배우자는 일부 도와주었다는 응답을 포함하면 여성이 손주양육의 주체가 된 비율이 85.1%까지 이른다. 시간을 쪼개어 내고, 손목과 허리에 파스를 붙여가며 힘들여 손주를 직접 돌보는 역할은 할머니의 몫이다. 할아버지는 거들고 있을 뿐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몫

이 뿐 아니다. 직접적인 부양 노동은 아니지만, 가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이들도 5060 여성이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성인자녀들은 주로 부모로부터 생활비나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실은 표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청소, 식사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가사 노동도 지원받고 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자녀 중에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5060 가구의 가사노동 역시 여성의 몫이다.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 조사가 이를 설명한다. 부인이 전적으로 양육과 가사분담을 맡는다 응답이 21.8%였고,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남편이 돕는다(65.8%)는 응답을 포함하면 기혼가구의 87.6%, 10 가구 중 9 가구는 여성이 주로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고 있다. 기혼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이 전적으로 가사활동을 맡고 있는 비율이 증가한다. 5060 여성 셋 중 한 명 꼴로 전적으로 가사활동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도표 5-4〉 기혼 가구(15~64세)의 부부간 양육과 가사활동 분담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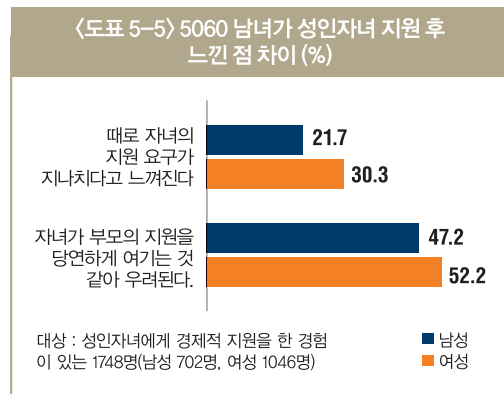
구분	전적으로 부인	주로 부인 남편 도움	반씩 나누어함	주로 남편 부인 도움	전적으로 남편	
전체	21.8	65.8	10.6	1.7	0.2	
기혼여성	23.4	66.3	9.2	1.0	0.0	
연령	15~29세	10.3	69.4	19.4	0.9	-
	30~39세	16.1	71.3	11.3	1.4	-
	40~49세	24.2	67.8	7.1	0.8	0.1
	50~59세	33.2	58.4	7.7	0.7	-
	60세 이상	34.5	57.6	4.2	3.7	-

주 : 분석대상은 기혼가구 중 유배우자로 한정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 가족 부양에 대한 남녀의 시선차

5060 남녀가 가족 부양에서 감당하는 실질적 역할이 다른 만큼, 가족을 부양하면서 느낀 점에도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성인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노부모를 간병하며 느낀 점이나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에 남녀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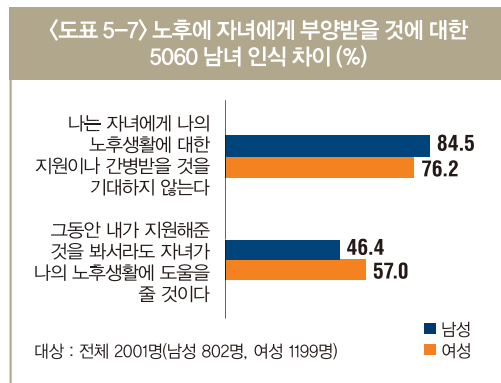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염려도 크지만 기대도 많은 5060 여성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5060 세대에게 느낀 점을 물었다. 5060 남녀 모두 여력이 되는 한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남 76.9%, 여 75.4%)거나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남 76.9%, 여 75.4%)이라고 생각했다. 5060 세대 다수는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성인자녀의 태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생각이 다소 차이가 있다. ‘때로 자녀의 지원 요구가 지나치다고 느껴진다’는 데 동의한 남성은 21.7%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 30.3%가 동의했다.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우려된다’는 데 동의한 남성은 47.2%인데 여성의 동의율은 52.2%로 유의하게 높았다. 아무래도 5060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성인자녀들의 생활에 좀 더 밀착되어 있고, 특히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일상에서 가사활동까지 도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자녀의 요구나 반응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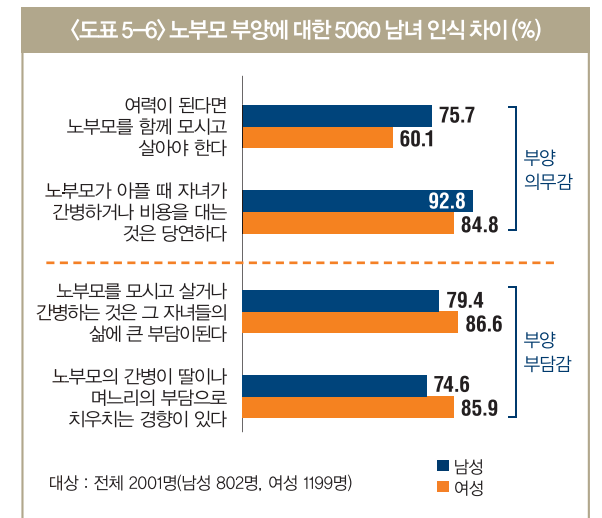
대체로 5060 여성은 남성보다 자녀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을 조금 더 기대하거나 자녀의 보답을 낙관하는 눈치다. 전반적으로 5060 세대는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부담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중에 자녀에게 부양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만 5060 세대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미묘한 인식 차이가 드러난다. ‘자녀에게 노후생활에 대한 지원이나 간병을 기대하지 않는다’에 대한 남성의 동의율은 84.5%이나 여성의 경우 76.2%가 동의해 남성에게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 또한 ‘그 동안 내가 지원해준 것을 봐서라도 자녀가 나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안 지원해준 것을 봐서라도 자녀가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여성의 동의율이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의 보답을 내심 기대하는 듯 보인다.

노부모 부양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적극적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력이 된다면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75.7%이지만, 여성은 60.1%가 동의했다. ‘노부모가 아플 때 자녀가 간병하거나 비용을 대는 것은 당연하다’는 데 있어서도 남성의 동의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남 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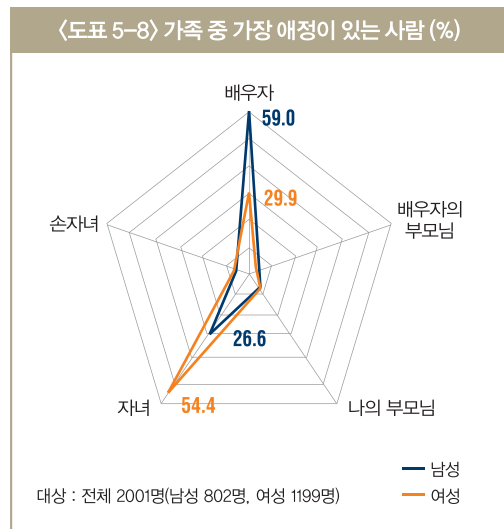


여 84.8%) 한편, 5060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노부모 부양의 어려움과 수고스러움을 크게 느낀다. ‘노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간병하는 것이 그 자녀의 삶에 큰 부담이 된다’거나 ‘노부모 간병이 딸이나 며느리의 부담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데 남성들보다 더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여성들이 노부모 부양, 간병에 있어 감당하는 역할이 더 많아 느끼는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다.

5060 가구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속한 구성원들을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것이 다르며 이는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도 차이를 가져온다. 대체로 5060 여성들이 부양의 대상을 막론하고 비경제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막중한 부양책임을 감당하고 있다. 이에 5060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가족 부양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며 부양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5060 부부가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가족 부양의 짐을 져나가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부양자로서 여성의 고달픈 입장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부부 서로 간 가족 부양에 대한 기대와 생각에 온도차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애정의 크기는 달라도 결국엔 ‘당신’ 밖에 없는 5060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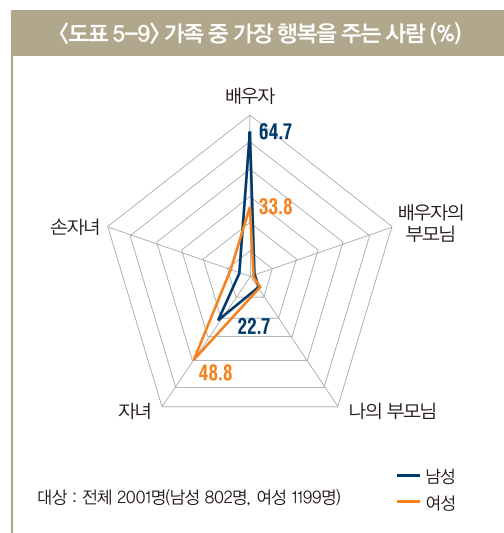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자녀가 가장 좋아



5060 세대가 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여다 보노라면 또 하나의 재미있는 동상이몽이 발견된다. 바로 부부간 서로를 향한 마음이다. 가족 중 가장 애정이 있는 사람이 누구지 물었다.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의 답에 큰 차이가 있었다. 5060 남성의 59%가 배우자를 가장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 답했다. 자녀라고 답한 비율은 26.6%로 배우자로 답한 경우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반대로 여성의 경우 54.4%가 가장 애

정이 있는 관계로 자녀와의 관계를 꼽았다. 배우자로 답한 비율은 29.9% 였다. 배우자를 가장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 꼽은 비율은 남녀 간 29.1% 포인트의 간극이 있다.

가장 행복을 주는 사람에 대한 응답도 비슷하다. 가족 관계 중 남성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는 단연 배우자다. 남성 응답자 셋 중 둘(64.7%)은 배우자를 가장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 답했지만, 여성 중 배우자에게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경우는 33.8%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대신 여성의 48.8%는 자녀에게서 가장 큰 행복을 얻고 있다. 남편은 오매불망 아내를 바라 보지만, 사실 아내의 오매불망은 그들의 자녀이다.



노후를 함께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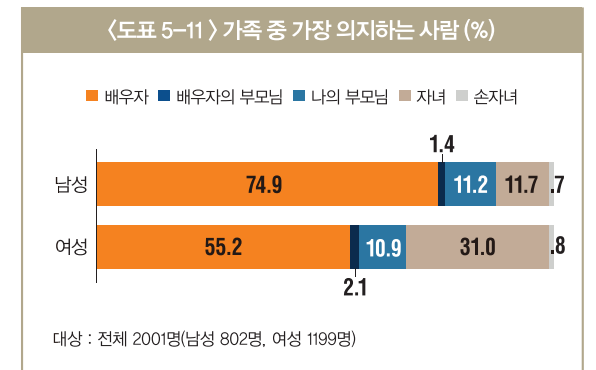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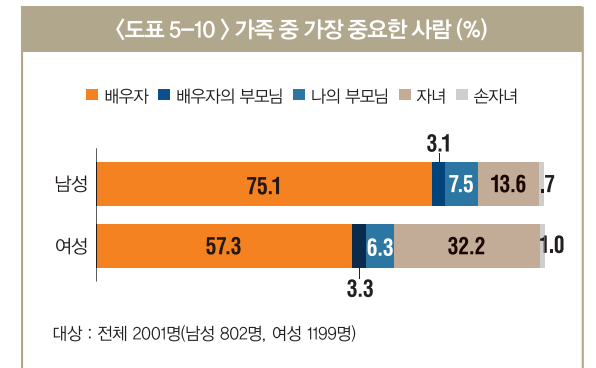
비록 5060 남성과 여성이 가족 중에서 가장 애정을 느끼고, 행복을 준다고 여기는 존재의 순위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남녀 공히 가족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죠. 제가 그것을 30년 살고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반은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나머지 반은 배우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황OO, 55세 여)

“늙어가면서 남편이 친구같이 지내게 돼요. 젊었을 때는 돈 버느라고 몰랐는데, 요즘에는 하루 노는 날 있으면 같이 영화 구경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홍OO, 62세 여)

5060 여성의 심층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드러났다. 의견 충돌도 있고, 다투기도 했던 서로이지만, 이제껏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또 함께 할 배우자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5060 세대에게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물었을 때 남성의 77.4%, 여성의 61.6%가 우리부부끼리만 살고 싶다고 답했다. ‘누구와 살게 될 것인지’가 아닌 ‘누구와 살고 싶은가’에 관한 질문이었다. 지금의 5060 세대는 성인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만만치않은 부양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부양의 부담에서 해방되었을 때 옆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꾸려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맺으며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 결과, 5060 세대의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다. 이러한 책임감은 ‘부모은행·월경부양·황혼육아·더블케어·동상이몽’이라는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부모은행’ 키워드는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자녀 지원이 끝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5060 세대 내 집 중 세 집(74.8%)이 성인자녀의 생활비, 용돈을 지원한 바 있다. 75.7%는 학자금, 결혼자금과 같은 목돈을 지원했으며 지원액은 평균 5847만 원에 달한다.

‘월경부양’은 5060 세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5060 세대 열 집 중 아홉 집(87.7%)은 부모님과 따로 산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44.6%가 부모님 생활비를 매달 챙겨드린다. 비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드리는 경우도 28.4%다. 부모님이 아프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모셔 간병하며, 형제자매가 나눠서 간병비를 부담한다.

‘황혼육아’는 자녀가 손주를 낳은 이후 추가되는 과업이다. 손주가 있는 5060 가운데 24%가 과거 황혼육아를 경험했고, 27.1%는 현재 손주를 돌봐주고 있다. 경험자들은 황혼육아가 체력적으로 고된 일이라고 말한다. 그에 비해 경제적 보상은 적다. 양육 수고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집은 34.9%에 그친다.

‘더블케어’는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5060 세대 중 성인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경우가 53.2%,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62.4%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부담하는 더블 케어 가구는 세 집 중 한 집(34.5%) 꼴이다. 이들은 자녀에게 78만원, 부모에게 40만원 등 총 118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가구 월평균 소득 579만원의 20.4%에 달하는 금액이다.

‘동상이몽’은 이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해야 할 5060 부부 사이의 갈등 요소다. 5060 여성은 노부모 부양(69.3%)이나 손주 양육(85.1%)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시선 차이도 있다. 남성은 배우자(59%)에게 가장 애정을 느끼지만, 여성은 배우자(29.9%)보다 자녀(54.4%)에게 많은 애정을 느낀다.

5060 세대에게 가족 부양은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큰 고민거리가 있다. 바로 노후생활,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이다. 5060 세대는 100세 시대 노후를 맞이하는 첫 세대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변모할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저성장 경제에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가족을 지원하느라, 혹은 소득이 부족해서, 그때 그때 쓰기 바빠 막상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은 부족했다는 후회도 하게 된다. 50대 응답자의 46%, 60대 응답자의 40.1%가 ‘충분한 노후 대비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것이 100세 시

대 노후를 앞둔 5060 세대의 현실이다.

가족 부양과 노후 준비, 두 마리 토끼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성인자녀들이 지원을 바라고, 위에서는 노부모가 의지하는 이 무거운 책임의 고리를 자신의 세대에서 끊어 내야겠다는 생각도 있다. 그래서 결국 5060 세대는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책임져야 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부양과 노후 준비 사이에 자원 배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5060 세대가 가족 부양과 노후 준비, 두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를 지원할 때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자녀를 지원하고 난 뒤 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준비자금을 먼저 준비해두고 나머지 금액으로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 자녀 세대의 결혼 시기가 5060 세대의 은퇴 시점과 맞물리다 보니, 퇴직금을 깨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해주었다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당장 얼마의 지원금을 주기보다 길게는 몇 십 년으로 이어질 나의 노후가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일일지 모른다.

둘째, 노부모 부양은 가족 전체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 5060 세대는 지금의 젊은 세대와 달리 적어도 서너 명의 형제자매가 부모를 함께 부양할 수 있다. 경제적 부양이든 물리적 부양이든, 한 집에서 노부모 부양을 전부 책임지기보다 형제자매끼리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외부 간병서비스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적절한 대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부부간 가족 지원에 대한 합의와 소통에 좀 더 힘써야 한다. 부부라 하더라도 자녀 지원이나 부모에 관한 생각이 다르고, 부양에서의 역할도 다른 듯 보인다. 배우자는 가족 부양과 노후 준비를 함께 감당할 동반자다. 마음을 합해야만 이 과업들을 무사히 달성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이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기보다 부부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할 필요가 있다. 노후에 함께 밥을 차려 먹고 여행을 가고 답소를 나누며 아프고 힘들 때 기댈 사람은 가족 중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곁의 배우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미현, 신형석, 이정화(2017), 일하는 가족 돌봄자 지원방안 연구 (노인돌봄 가족을 중심으로), 서울시 복지재단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 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지, 김수정, 민현주, 정수연(2010),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희정(2015), 맞벌이 가구의 영아양육을 위한 조부모 양육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ISSUE PAPE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윤진, 권미경, 김승진(2015),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5-10

이재림(2017), ‘부모는 영원한 봉인가?’ 20-30대 성인자녀의 도구적 의존 재조명, 『한국가족을 말한다- 현상과 쟁점』

이지영, 최현자(2009),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 :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11)

정지영, 양세정(2013),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1)

Fry, R. (2016), For First Time in Modern Era, Living with Parents Edges out Other Living Arrangements for 18-to 34-Year-Olds: Share Living with Spouse or Partner Continues to Fall, Pew Research Center

Lee, S., Colditz, G., Berkman, L., & Kawachi, I. (2003), Caregiving to children and grandchildren and risk of coronary heart disease in wom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11)

Merrill Lynch & Age Wave (2013), Family & Retirement: The Elephant in the Room. Bank of America Corporation

서울시(2013),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노후생활, e-서울통계 85호

육아정책연구소, 해외육아정책 동향 www.kicce.re.kr/kor/reference/01_02.jsp

통계청(2014), 사회조사 보고서

통계청(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황혼육아 늘면서...유럽은 조부모도 육아휴직”, 중앙일보 (2016.4.22)

“Hong Kong’s Hottest Property Lender: The Bank of Mom and Dad”, The Wall Street Journal (2018.3.20)



연금과 투자,
노후 대비 정보 어디가 좋을까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팟캐스트 · 페이스북 · 뉴스레터



01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 발전소'

'팟빵/podcast' 앱 접속 → '은퇴' 검색 →
'행복한 은퇴 발전소' 구독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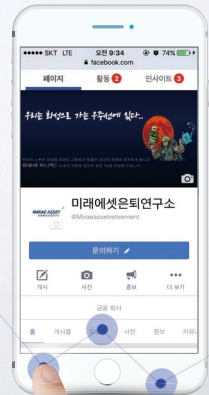
Facebook '미래에셋은퇴연구소'

'Facebook' 웹 / 앱 접속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검색 →
페이지의 '좋아요' 클릭

03

뉴스레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검색 →
'뉴스레터 신청' 클릭 → 이메일주소 등록



2018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 보고서

5가지 키워드로 본 5060 세대의 가족과 삶

